[UCI]I804:24011-200000231687

다산 정약용의 서찰 연구

- 강진 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asan Jeong Yak-yong's Letters : Centering on the Times of His Stay in Gangjin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최 이 호

다산 정약용의 서찰 연구

지도교수 권 순 열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한문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최 이 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479 2007-04-09

최이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金 戊基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李 相夏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梅 純 到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제1장 서론.....1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목적.....1
제2절 연구 방향.....5

제2장 강진 유배지에서의 교유.....7
제1절 해남 윤씨와의 교유.....9
제2절 강진에서의 교육 활동.....17
1. 초기의 邑中 제자.....18
2. 후기의 茶信契 제자.....23
제3절 승려와의 교유.....27
제3장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서찰.....35
제1절 자녀에게 本立道生을 가르침.....35
제2절 형에게 학문 토론을 요청함.....52
제3절 김이재에게 憂國衷情을 표명함.....64
제4절 이재의에게 실천적 학문을 주장함.....72

제4장 결론.....80

참고문헌.....83

ABSTRACT

A Study on Dasan Jeong Yak-yong's Letters

- Centering on the Times of His Stay in Gangjin -

Choi, I-ho

Adviser : Kwon Soon-yoel Litt.D.

Major :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Dasan's numerous writings were mostly produced at the place of exile, Gangjin. Despite living problems and mental instability, he continuously devoted himself to writing to compile practical science. This study examined methodological principles by which he could produce his writings and aspects of patriotism and ideologies through letters he sent from Gangjin.

Chapter 2 examined how Dasan expanded and completed his study through social intercourse and education at the place of exile.

Haenam Yun as Dasan's mother's family and Haenam Yun living in Gangjin gave lots of economic help; in particular, Yun Dan offered Dasanchodang in 1808, which enabled Dasan to obtain good results of academic writings. Eupjung pupils, Hwang Sang and Lee Cheong, obtained academically great results following their teacher and pupils in the Dasin group also

participated consistently in Dasan's writing. Finally, the encounter with the Buddhist priest, Hyejang, caused Dasan to get great vitality in life and begin academic exchange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Choui Uisun also came to Dasanchodang for his teaching.

Chapter 3 examined concrete academic modes, attitudes, patriotism, and ideologies revealed through letters Dasan sent from the place of exile largely in four categories.

Paragraph 1 examined his educational methods through letters sent to his children and lineage. Dasan's education of children was very elaborate and deliberate. He explained how to make abridge and book and gave an assignment followed by his own review.

Paragraph 2 examined how academic accomplishment and writings were made through letters exchanged with his brother, Jeong Yak-jeon. As for discussions with his brother, Dasan sent a draft to Jeong Yak-jeon, who added his opinion or revised it. The academic discussions performed in this way between brothers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Dasan's numerous writings.

Paragraph 3 examined a letter with two items sent to his political comrade, Kim I-jae: realities of the then rural communities and contradiction in social system, and complaint of the injustice for him.

Paragraph 4 dealt with discussions about Mencius' theory of mentality with Munsan Lee Jae-ui. Munsan had an idealistic position of orthodox Neo-Confucianism while Dasan stuck to a practical position of practical science. Discussions between them ended without even a bit concession, which served to consolidate their own theory.

As discussed above, letters Dasan sent from Gangjin most acutely show

his academic attitudes, patriotism, and ideological aspects. This study described Dasan's humane aspects along with his academic attitudes and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writing through letters he sent from Gangjin. It is therefore believed that this study will be so valuable if researchers in Dasan can use it as a base.

제1장 서 론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목적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조선 후기 격변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노론 벽파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시작된 辛酉邪獄[1]으로 다산의 형제 중에 셋째 형 丁若鐘과 맏형 丁若鉉의 사위 黃嗣永은 처형되었다. 그리고 둘째 형 丁若銓과 그는 각각 나주 흑산도와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죽고 다산은 유배 18년만인 1818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 했던 李家煥, 權哲身 그리고 동인 모임이었던 竹蘭詩社 일원들도 죽거나 정치적 생명이 다하게 되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의 몰락은 다산이 장장 18년간의 유배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산은 유배 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강진 인근의 해남 외가와 강진의 해남 윤씨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되고 그들과 교유하게 된다. 또, 백련사에 있던 兒菴 惠藏과의 만남은 다산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어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갖게 되고, 다산초당으로 옮긴 1808년부터 해배된 1818년까지 제자들을 양성하며 학문에 정진하여 유배의 고통을 잊고 수많은 저술을 하기에 이른다. 1934~1938에 安在鴻(1891~1965)과 함께 『여유당전서』를 간행한 鄭寅普(1893~1950)는 "한자가 발명된 이래 최대의 학문적 저술을 한 학자는 다산 정약용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500여권으로 알려 졌던 다산의 저술이 강진 군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600권이 넘을 것이라고

1) 1801년 신유년에 일어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이다. 정조가 죽고 1801년 정월 나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는 邪敎 · 西敎를 엄금 · 근절하라는 금압령을 내렸다. 이 박해로 이승훈 · 이가환 · 정약용 등의 천주교도와 진보적 사상가가 처형 또는 유배되고, 주문모를 비롯한 교도 약 100명이 처형되고 약 400명이 유배되었다. 이 신유박해는 급격히 확대된 천주교세력에 위협을 느낀 지배세력의 종교탄압이자, 또한 이를 구실로 老論 등 집권 보수세력이 당시 정치적 반대세력인 남인을 비롯한 진보적 사상가와 정치세력을 탄압한 권력다툼의 일환이었다.

한다.[2] 방대한 양뿐 아니라 정밀하기까지 한 다산의 저술은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지만 유배지에서의 후속작업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는 '다산이 어떻게 방대하면서도 정밀한 저술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학문적으로 성숙할 시기인 중년기에 다산은 18년간 강진에 머물면서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다산에게 있어서 강진은 유배지의 의미보다는 학문적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안식처이자 연구실이었다. 다산이 강진에서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그의 학문 태도뿐 아니라 당시의 고민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의 강진에서의 학문적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방법적 원리를 찾는 데에는 미흡했고, 특히 위대한 학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그의 인간적인 면을 그려내는 데 소홀하였다.

박석무, 금장태, 이덕일[3]은 그의 저서에서 다산의 강진에서의 생활과 교유, 편지를 통하여 다산의 학문 방식이나 태도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 책들은 연구서가 아니고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민[4]은 다산의 저술 방식을 본떠 전체 목차를 세우고 갈래를 나누어 카드 작업을 하였다. 그래서 총 10綱, 50目, 200訣로 나누어 다산이 어떻게 지식 경영을 하였는지 잘 보여주었다. 그는 다산 저작들의 방법적 원리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다산 학문의 방법적 특징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즉, 그는 다산이 명확한 목표 관리와 체계적인 단계 수립, 효율적인 작업 진행, 조직적인 역할 분담으로 수많은 저술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방법적 원리를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다산이 학문적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인 당시의 상황이나 그의 감정을 간과하였다.

---

2) 『전남일보』, 2006년 8월 14일자.

3) 박석무,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금장태,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이끌리오, 2005.
이덕일,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2』, 김영사, 2005.

4) 정민,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 김영사, 2006.

정석종[5]은 다산의 친구들이 정계에서 다산의 해배 운동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다산의 생활과 학문 태도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우선시하여 다산의 삶이나 학문 태도가 거의 부각되지 못했다.

편지를 연구내용으로 삼고 있는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다산이 자녀에게 보낸 편지와 가계를 통해 다산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유정희[6]는 다산이 자녀에게 보낸 편지와 가계를 텍스트로 다산의 교육관을 검토하였다. 품성교육, 윤리교육, 경제교육 순으로 고찰하여 추출된 교육관을 통하여 현대 자녀교육과 접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교육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순형[7]은 다산의 서간을 바탕으로 다산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연구했다. 교육방법에서 의미 연상에 의한 학습법과 인지훈련과 과제해결 방법으로 통합적 교육방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서도 교육에 주목하였는데 다산이 자녀교육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인 생각을 어떻게 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다산과 문산 이재의와의 교류 편지를 텍스트로 하여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보람[8]은 다산과 문산의 서신논쟁을 지적측면과 종교적 시각으로서 파악하려 하였다. 그는 둘 사이의 심성 문제에 초점을 두어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다산과 문산의 편지를 텍스트로 한 종교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산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 다산의 학문 태도를 고찰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산이 강진에서 보낸 서찰을 통해 그의 학문 태도나 저술의

5) 정석종,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4.

6) 유정희, 「다산의 자녀교육 연구 - 가계와 서간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1992.

7) 이순형, 「정약용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 두 아들에게 보낸 서간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1997.

8) 이보람, 『다산과 문산의 인성 논쟁 연구 : 교류 서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방법적 원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적인 면을 고찰하는 것이다. 서찰에는 한시나 다른 글들에서 보이지 않는 작가의 진솔한 면이 그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그가 유배 이전이나 해배 이후에 보낸 편지보다 훨씬 감정적인 면에 호소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가족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가 대부분이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유배 시절이 18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문의 방법적 원리를 모색하고 학문을 탐구 했던 학자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고민했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산이 강진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사람들과 학문적 교유를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과 함께 왜 그가 이러저러한 문제로 고민 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그가 강진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세세한 그의 학문 방식이나 태도, 고민, 경학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退溪 李滉(1501~1570)은 주자가 道學의 학문 방법으로 편지를 중시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학문방법에서 편지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 편지는 사람의 자질이 높고 낮음과 학문의 깊고 옅음에 따라 병에 맞추어 약을 주고 물건에 상응하여 저울추를 올려놓는 방법을 쓴다. 혹은 누르고 혹은 부추기며 혹은 인도하고 혹은 구조하며, 혹은 격려하여 나아가게 하고 혹은 물리쳐 경고해 주기도 한다.[9]

퇴계는 편지라는 매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세세한 것까지 도와주거나 지적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다산도 그의 학문적 태도나 방법 그리고 학문에 대한 세세한 고민 등을 고스란히 편지에 담았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통해 학문의 구체적 방법과 전개 방식, 태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

9)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출판부, 1998, 5면 재인용. 「朱子書節要序」, 『퇴계집』 권42.
至於書札 則各隧其人材稟之高下 學問之淺深 審證而用藥石 應物而施爐錘 或抑或揚 或導或救 或激而進之 或斥而警之.

제2절 연구 방향

다산이 강진에서 보낸 편지에 대한 연구는 다산의 편지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강진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의 삶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진 인근에 다산의 외가인 해남 윤씨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었고, 서울과 멀리 떨어져 위인지학보다는 위기지학에 치중했던 순박한 제자들이 있었다. 또, 초당 근처에 뛰어난 승려인 아암 혜장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의 강진에서의 생활과 교유를 살펴본 다음에 강진에서 보낸 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다산이 교유와 교육을 통하여 그의 학문이 어떻게 확대되고 완성되었는지를 알아본다. 제1절에서는 강진 인근에 세거하고 있던 해남 윤씨의 경제적 지원과 교유를 알아본다. 제2절에서는 제자의 교육 방식과 제자들의 도움으로 어떠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는지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아암 혜장으로 대표되는 승려와의 교유와 학문적 토론, 그리고 혜장의 제자와 초의 의순과의 사제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학문이 확대되었는지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다산의 편지를 통하여 그의 학문태도나 방식, 저술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그의 경학관 등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핀다. 제1절에서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와 가계를 통해 자녀 교육의 방법을 살피고 아울러 그의 학문적 태도를 고찰한다. 제2절에서는 형과의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저술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태도, 말 못할 고민, 저술에 대한 자부심을 고찰해 본다. 제3절에서는 정치적 동지인 김이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당시 정치적 상황과 그의 우국충정을 고찰해 본다. 제4절에서는 문산 이재의와의 학문적 논쟁으로 그의 사상의 일면과 함께 학문 방식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텍스트는 1934~1938년에 정인보·안재홍에 의해 간행된 『여유당전서』를 기본 텍

스트로 한다. 그리고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규장각 필사본이나, 『문산집』, 「다신계절목」 등을 참조한다.

제2장 강진 유배지에서의 교유

다산 정약용은 신유사옥으로 1801년 2월 27일 감옥에서 나와 2월 28일에 유배지인 경상도의 바닷가 마을인 장기현으로 떠났다. 그 후 「황사영백서」 사건으로 다시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고 나와 형 정약전과 11월 22일 나주 율정점에서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약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 신유년(1801) 겨울에 강진에 도착하여 동문 밖 주막에 寓接했다. 을축년(1805) 겨울에는 보은산방에서 기식했고 병인년(1806) 가을에는 이청의 집으로 옮겨와 우거했으며, 무진년(1808) 봄에는 茶山에 와서 임시로 살았으니, 총 유배살이 기간은 18년인데 그 가운데 강진읍에서 살았던 기간이 8년이고 다산에서 살았던 기간이 10년이다.[10]

이렇게 다산은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강진읍에서 1801년부터 1808년 봄까지 8년, 다산에서 1808년 봄부터 1818년 여름까지 10년을 살았다. 다산이 처음 강진에 왔을 때는 정치범으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으나 이후 외가가 되는 해남 윤씨들의 경제적 지원과 제자와의 만남, 또 승려와의 교유 등으로 삶의 활기를 띠었고 가족들과의 왕래로 안정을 찾으면서 수많은 저술[11]을 하기에 이른다. 강진에서 다산이 저술한 목록은 표1과 같다.

<표 1> 강진에서 다산의 저술 목록

년도	나이	서 명
1802	41	檀弓箴誤(단궁잠오), 弔尊考(조존고)

10) 「茶信契節目」 (이을호, 「전남 강진에 남긴 茶信契節目考」, 『호남문화연구』 제1집, 호남문화연구소, 1963에서 재인용. 이하 「茶信契節目」 으로 약칭함.)
余於嘉慶辛酉冬到配于康津 寓接于東門外酒家 乙丑冬棲寶恩山房 丙寅秋徙于鶴來之家 戊辰春乃寓茶山 通計在謫十有八年 其居邑者八年 其居茶山者十有一年.

1805	44	正體傳重辨(정체전중변)완성
1807	46	喪禮四箋(상례사전)(50권), 禮箋喪具訂(예전상구정)
1808	47	茶山問答(다산문답), 茶山諸生贈言(다산제생증언), 祭禮考定(제례고정), 周易心箋(주역심전)(24권), 讀易要旨(독역요지)(18칙), 易禮比釋(역례비석), 易學緖言(역학서언)(12권), 春秋官點(춘추관점)(보주)
1809	48	喪禮外篇(상례외편)(12권), 禮箋喪服商(예전상복상), 詩經講義(시경강의), 刪錄(산록)(12권)
1810	49	詩經講義補(시경강의보)(3권), 冠禮酌儀(관례작의), 嘉禮酌儀(가례작의), 小學珠串(소학주천)(3권)
1811	50	我邦疆域考(아방강역고)(10권), 禮箋喪期別(예전상기별), 喪禮四節(상례사절)
1812	51	民堡議(민보의)(3권), 春秋考微(춘추고미)(12권)
1813	52	論語古今注(논어고금주)(40권)
1814	53	孟子要義(맹자요의)(9권), 大學公議(대학공의)(3권), 中庸自箴(중용자잠)(3권), 中庸講義補(중용강의보)(6권), 大東水經(대동수경)(2권)
1815	54	心經密驗(심경밀험)(1권), 小學枝言(소학지언)
1816	55	樂書孤存(악서고존)(12권)
1817	56	喪儀節要(상의절요), 經世遺表(경세유표)(48권) 미완
1818	57	牧民心書(목민심서)(48권)완성, 國朝典禮考(국조전례고)(2권)

다산은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저서들을 완성하였다. 이 장에서는 다산이 교유와 교육을 통하여 그의 학문이 어떻게 확대되고 완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1절 해남 윤씨와의 교유

다산은 1801년 11월 말 추운 겨울에 강진으로 귀양을 오게 되는데 정치범으로 유배 온 다산에게 강진 사람들은 냉대하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막의 한 노파가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주막집 골방에 몸을 의탁하게 했다.

> 신유년(1801) 겨울에 내가 장기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올라왔다가 또다시 강진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강진은 옛날 백제의 남쪽 변방으로 지역이 비루하고 색다른 풍속이다. 그 당시에 그곳 백성들은 유배 온 사람 보기를 마치 큰 해독으로 보아 가는 곳마다 모두 문을 부수고 담장을 무너뜨리면서 달아나버렸다. 그런데 한 노파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집에서 살도록 해주었다.[12]

이후 가족에게서 편지가 오고 큰 아들 학연이 찾아와 기쁨은 컸지만 의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다산은 그 때 심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 하물며 『매씨서평』은 귀양 갔던 첫 해에 지었던 책이므로 그때에는 氣習이 제거되지 못했고 깊은 울분이 평정되지 못하여 감정을 촉발하게 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한바탕 통렬하게 타매하여야만 겨우 조금 풀리곤 했었으니 이것이 어찌 도를 배우는 사람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13]

다산은 벽파의 정치적 탄압으로 자신이 귀양 온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다산은 이때에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시를 짓고 강진의 풍속과 백성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시들을 지었다.[14] 물론 아전의 자제

---

12) 「喪禮四箋序」, 『與猶堂全書』 제1집, 권12, 36면.
嘉慶辛酉冬 余自嶺南被逮至京師 又轉而適康津 康津故百濟南徼地 卑陋俗殊 當是時 民之眡流人如大毒 所至皆破門壞牆而走 有一媼憐而舍之.

13) 「答金德叟」,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30면.
況書平乃流落最初年所作 彼時習氣未除 幽憤未平 遇有觸激 須卽一場痛罵 方纔小快 此豈學道人事耶.

14) 1802년 지어진 시들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 한 시로는 「新年得家書」, 「五雜組」, 「兩頭纖纖」, 「三聲詞」, 「奉簡伯氏」이 있고 강진의 풍속과 백성의 고통을 아파한 시로는 「耽津村謠二十首」, 「耽津農歌」, 「耽

중 몇 사람이 그가 뛰어난 유학자임을 알고 배우러 오기도 했지만 유배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궁핍하였다. 다산은 강진에 온 지 일 년 후에야 다산의 외가인 해남 윤씨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 경술년(1790) 사이에 公(윤서유)이 북으로 서울에 노닐면서 이가환을 少陵에서 뵙고, 또 우리 형제(다산의 형제)와 교분을 정하였다. 12년 뒤 신유년(1801) 겨울에 내가 장기에서 다시 강진으로 유배 갔다. 이때를 당하여 나와 이가환과 좋게 지낸 사람은 모두 罪網에 걸렸었다. 윤서유도 강진에서 옥에 불려 들어갔다가 증거가 없어 나온 지 겨우 두어 달이 되었다.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감히 서로 방문하지 못하였다. 그 이듬해 임술년(1802) 겨울에 윤서유가 부친의 명으로 사촌 동생인 윤시유를 몰래 읍에 들여보내어 서로 만나보고 술과 고기를 보내 위로하기를 "큰아버지(윤광택)께서 옛날의 일을 생각하여 말하기를 '친구의 아들이 궁곤하게 되어 우리 고을에 의탁하였는데, 내가 비록 館穀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두려워하고 삼간다는 한 가지 이유로 마침내 돕는 것조차 그만둘 수 있겠는가'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 이로부터 혹 밤에 와서 예부터 좋게 지내던 정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마침 교리 김이재가 고금도(현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에서 귀양 살고 있던 참이라 나로 인해 윤서유 형제도 알고 지냈는데, 그가 우리 사이는 대대로 교분이 무척 가깝다는 것을 널리 이야기해주자, 吏屬들이 모두 깨닫게 되어 마침내 왕래함을 막지 않았다.[15]

1802년 겨울에 다산의 부친인 丁載遠의 친구로 강진의 부호였던 尹光宅과 그의 아들 尹書有, 그리고 윤서유의 사촌동생이었던 尹詩有의 도움으로 다산은 유배지에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갖게 되었다. 윤서유는 젊은 시절 서울로 유학하여 이가환도 찾아가고 다산 형제들과 가깝게 어울리면서 과거공부도 했었다. 하지만 자신도 정치범으로 구속되어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해 찾아보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자 만나게 되었다. 이후 윤서유와는 강진에 있으면서 산수도 즐기고 자주 교유를 하며 친하게 지냈다.

津漁歌十章」이 있다.

15) 「司諫院翁山尹公墓誌命」, 『與猶堂全書』 제1집, 권16, 30면.
庚戌間公北游京都 謁李公家煥于少陵 又與吾昆弟定交 後十二年辛酉冬 余自長鬐轉而適康津 當是時 凡與余及少陵好者 咸離網罟 公亦速獄于道康 無證乃出者菫數月 以此惴惴不敢相問 厥明年壬戌冬 公以親命遣其從父弟詩 有潛入邑以相見 遺酒肉以慰之曰 伯父感念昔年 以爲故人之子 窮困投吾鄉 吾雖不能館穀 獨以畏約之故 遂闕問遺哉 自玆或夜來以續情好 適金校理履載謫居皐夷島 因余而識公之兄弟 盛言世網太密 吏屬咸悟 遂往來無闕.

개보(윤서유)와 그의 사촌 아우 군보(윤시유)가 술과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어떤 때에는 石門에서 기다리고, 어떤 때에는 龍穴에서 기다리고 어떤 때에는 靑蘿谷(청라곡)에서 기다린다. 이미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은 뒤에는 그와 함께 농산에 있는 농막에서 잠을 자는 것 또한 예이다.[16]

다산은 윤서유(1764~1821)보다 두 살밖에 많지 않아 매우 친한 친구처럼 지냈다. 농산은 윤서유의 별장인데 사촌동생 윤시유와 함께 술과 물고기를 가지고 석문, 용혈, 청라곡에서 즐기며 한가로운 때를 보냈다. 이 「朝夕樓記」는 다산이 1811년 초당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니 1802년부터 계속해서 윤서유와 자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윤서유는 함께 산수를 즐기는 것뿐 아니라 다산에게 매실과 죽순을 보내 주는 등[17] 경제적으로도 지원하였다. 그래서 다산은 윤서유를 그리워하여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朱雀山中一畝莊	주작산 속에 있는 자그마한 산장 하나
君家別館信淸涼	그대의 별장이 참으로 청량하네
樓連竹塢衣裳冷	대밭 곁에 누대 있어 의상에 냉기 돌고
徑偪荷池杖屨香	연못 가로 나있는 길 지나만 가도 향기 스며
細瀹猫頭參玉版	죽순을 살짝 데쳐 옥판에 차려두고
遙彎象鼻作霞觴	코끼리코 모양으로 꼬부라진 술잔이라
今年此會知何日	금년의 이 모임을 언제나 또 가질까
病枕常敧十笏房	병이 들어 좁은 방에 늘 기대어 누웠다네[18]

다산은 아마도 윤서유 등과 정기적으로 윤서유의 별장인 농산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다산이 초당으로 옮기면서부터는 윤서유의 집과 10리가 못 되었는데, 1813년 윤서유가 다산의 고향인 마현 근처로 이사 가기까지 강진에서 그들의 교유는 지속되었다. 이렇게 윤서유와 산수도 즐기고 경제적 지원도 받으면서

16) 「朝夕樓記」, 『與猶堂全書』 제1집, 권13, 26면.
皆甫與其從父弟羣甫 佩酒持魚而至 或期乎石門 或期乎龍穴 或期乎靑蘿之谷 旣醉而飽 與之宿乎農山之墅 亦例也.

17)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33면.
皆甫餽梅實竹笋 以山田新瓜謝之.

18) 「簡寄皆甫」,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33면.

학문적 교류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 공(윤서유)은 여러 서적들을 두루 보고 감별이 정밀하였으나, 거두어 간직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다. 勤厚하고 말이 적으며 평생에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강진은 互鄕[19]이건만 온 고을이 모두 賢士라 하였고, 벼슬길은 나그네와 같건만 친한 사람은 모두 吉士라 하였다.[20]

다산은 윤서유가 근후하고 과묵하지만 여러 서적의 감별이 뛰어났다고 하여 윤서유의 학문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후에 윤서유는 사간원 정원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윤서유와의 학문적 교류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서유가 다산의 저술에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직접 만나서 학문적으로 교류하였으나 저술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뒷날 다산은 외동딸을 윤서유의 아들인 尹昌謨(영희)에게 시집보내 두 집안은 사돈이 되었다. 윤창모는 다신계 제자는 아니지만 다산초당에 있을 때 다산에게 배웠으니 제자 겸 사위가 된 것이다.

1808년 봄에 다산은 귤동마을에 있는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그 마을은 다산의 외가와는 파가 다른 해남 윤씨였다. 이 마을에는 아버지의 친구인 귤림처사 尹博이 한가롭게 책을 읽으며 지낸 곳이 있었는데 산속의 정자가 바로 다산초당이었다. 윤단은 그의 아들 尹奎魯(1769~1837)와 함께 그의 손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다산을 초당으로 초빙하였다.[21]

> 봄에 다산으로 옮겨 거처했다. 다산은 강진현 남쪽에 있는 만덕사 서쪽에 있는데 處士 윤단의 산정이다. 다산이 초당으로 옮긴 뒤 臺를 쌓고, 못을 파고, 꽃나무를 열지어 심고, 물을 끌어다 폭포를 만들고, 동쪽 서쪽에 두 암자를 짓고, 서적 1,000여권을 쌓아두고 글을 지으며 스스로 즐기고 石壁에 '丁石' 두 글자를 새겼다.[22]

---

19) 호향이란 옛날 중국 고을 이름으로 지금 강소성 패현 지역인데 풍기가 나쁜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20) 「司諫院翁山尹公墓誌命」, 『與猶堂全書』 제1집, 권16, 31면.
公博覽羣書 鑑別精核 而斂然不自衒 謹厚寡言 平生不言人臧否 康津互鄕也 一鄕咸以爲賢士 朝路羇旅也 親者皆謂之吉士.

21) 박석무,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469면.

다산은 초당으로 옮긴 뒤 초당의 주위를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다. 臺를 쌓고, 못을 파고, 꽃을 심고, 폭포를 만들고, 암자를 지어 책을 쓰며 스스로 즐겼는데 다산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저술에 힘썼다.[23] 다산이 초당에 보관하고 있던 서적 천여 권은 다산이 초당으로 옮기기 전 8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마현에서 가져오기에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은 모두 어디에서 구했을까? 아마도 해남 윤씨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산의 외가가 가까운 해남에 있었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인 윤광택, 초당의 원 주인인 윤단 등이 다산을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초당으로 옮긴 지 1년 후(1809)에 초당 주변을 새롭게 꾸미는 큰 공사를 벌였다. 처음에는 매화나무 아래를 산책하다가 잡초와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것이 보기에 안 되어 손에 칼과 삽을 들고 얽혀있는 것을 쳐냈으나 일이 커지자 윤단의 아들인 尹奎魯(문거)와 奎殷(규하) 형제가 도와주었고 아이들까지 와서 일을 마치게 되었다.[24] 이 공사는 초봄에 일을 시작하여 봄을 다 보내고야 완공 되었으니 매우 큰 공사임을 알 수 있다. 50이 가까운 나이에 다산은 혼자서 하기에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귤동의 윤씨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윤규로 형제는 다산이 자신의 아들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하였다.

尹鍾河(1772~1810)는 恭齋 尹斗緖(1668~1715)의 5세손으로 다산의 외척이다. 윤종하는 벼슬을 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다산이 윤종하를 위해 쓴 제문에 "편부(楄柎)[25]를 깔지도 못하고 들것으로 겨우 가리었다."[26]고 하였으니 유

---

22) 송재소(1993), 『俟菴先生年譜』 298~299면. (『俟菴先生年譜』는 다산의 후손인 정규영의 저작으로 송재소, 『다산시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재인용함. 이하 송재소(1993), 『俟菴先生年譜』로 약칭함.)

23) 앞의 표1 참조.

24) 「一日散步梅下 隱其榛蕪 手持刀臿 斫其纏糾 砌石爲壇 因緣浸染於其上下 爲砌九級 以爲菜圃 遂至東池 拓其匡廓 新其臺塢 列植名花佳卉 因其巖石爲假山一區 迤邐彎曲 水泉穿瀉 起功在首春 送春而竣 文擧兄弟 實躬厥勞 余亦助焉 雖窮約匪分 觀者歎咨 僉曰洵美 爲詩志喜 凡八十韻」,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30면.

25) 옛날 상례 때 관 가운데에 쓰이던 나무판으로 시체를 괴어 놓은 것

26) 「祭尹公潤 鍾河文」, 『與猶堂全書』 제1집, 권17, 10면.
楄柎不藉 藁梩董揜.

복하게 강진에 세거하고 있던 해남 윤씨와는 다르게 윤종하는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죽었을 때도 장례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 다산은 윤종하와 함께 초당에서 『周易』에 대해 오래도록 토론하였는데[27], 이러한 노력이 1808년에 『周易心箋』, 『讀易要旨』, 『易學緖言』을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다산은 윤종하에게 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하였지만 유배지 강진에서 외로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벗이라 여겼다.

去歲梅花君作主　　작년에는 그대가 매화의 주인이더니
今年梅發我思君　　금년에는 매화 피자 내가 그대 생각하네
猶留藥裹香堪嗅　　약 속에 넣어뒀던 것 향이 아직 맡을 만하고
舊歠茶甌味未分　　옛날에 마시던 찻잔 그 맛도 그대론데
客裏流光同逝水　　객지에서 보내는 세월 흐르는 물과 같고
夢中佳句記停雲　　꿈 속에서 읊던 시구 기억나는 건 정운이라네
(夢與公潤賦詩唯記停雲一句) (꿈에 공윤과 함께 시를 읊었으나 오직 정운 한 구 만이 기억난다)
餘生毁譽何須理　　남은 인생 누가 뭐라든 따질 것이 뭐겠는가
髮賦纔成已白紛　　『백발부』 겨우 쓰고 나자 이미 백발이 되었는 걸[28]

1809년 봄, 다산이 초당에 있을 때 윤종하에게 준 시다. 매화가 피자 다산은 윤종하가 그리워 작년에 매화 필 때 함께 차를 마시던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유배지에서 평생 늙어 죽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하니 자신의 처지가 매우 처량했다. 당시 윤종하는 중병이 들었는데 다산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윤종하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더 그리워하였다. 다산이 윤종하에게 많이 의지했던 사실은 그의 시에서도 드러난다. 다산이 강진에서 지은 시 중에서 아암 혜장 다음으로 윤종하에 대한 시가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29] 결국 윤종하는 1810년 8월에 병으로 죽게 된다. 다산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던 윤종

27) 「祭尹公潤 鍾河文」, 『與猶堂全書』 제1집, 권17, 10면.
日講一卦 我談子讀.

28) 「梅花開憶公潤 二月初六日 簡寄其兄弟」,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29면.

29) 『여유당전서』에 윤종하(字 公潤)에 관한 시는 총 네 수로 「小雨對菊花示公潤」, 「又贈公潤」, 「梅花開憶公潤 簡寄其兄弟」, 「三月十六日 游尹文擧茶山書屋 公潤調息在此 因仍信宿 遂踰旬日 漸有終焉之志 聊述二篇示公潤」이 있다.

하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였다.

>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나 나는 서글프고 마음 아픕니다. 저버리지 말라는 그 부탁은 내가 승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디 그만한 사람도 못되는데 하물며 불우함에 있는 데이겠습니까. 그 보호는 하늘이 할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바람에 임해 눈물을 씻으며 속마음 털어놓으니, 부디 흠향하소서.[30]

다산은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였던 윤종하를 위해 제문을 썼다. 살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나 마음으로 의지하는 친구를 잃자 다산은 매우 슬퍼하였다.

이와 같이 다산은 초당에서 살기 전부터 해남 윤씨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초당으로 옮긴 후에도 해남 윤씨의 자손들을 교육하면서 경제적 지원 및 위로도 받았다. 그러면서 밭을 사서 직접 농사도 지었다.

縛屋依山阿	산언덕 의지해서 집을 짓고
治泉拓榛楛	샘물 파고 진펄밭 개척하고
遂買田一稜	그리고 전답도 한 뙈기 사서
今年試種稌	올해 찰벼를 심어 보았더니
鋌之得五斗	닷말이나 거뜬히 수확하여
亦足餱糧補	그것이면 식량도 족하다네[31]

1810년 초당으로 옮긴 뒤에 해남 윤씨들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산은 논을 사서 찰벼 다섯 말을 수확하였다. 강진 寶巖의 永登坪과 巨古坪의 각각 3두락(마지기)과 2두락, 모두 5두락의 논을 사들였는데 1809년에 심하게 흉년이 들자 헐값에 구한 것이었다.

또한 다산이 다산초당으로 옮기던 처음에는 산정에 식사를 준비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산 아래 마을까지 식사를 하려고 오르내려야 했다. 그런데 백련사에

---

30) 「祭尹公潤 鍾河文」, 『與猶堂全書』 제1집, 권17, 10면.
子所不知 我乃悽慘 弗俏之託 我所不鎭 諒匪其人 矧在坑坎 其保維天 我則何敢 臨風雪涕 輸寫肝膽 尙享.

31) 「寄穉敎」,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34면.
縛屋依山阿 治泉拓榛楛 遂買田一稜 今年試種稌 鋌之得五斗 亦足餱糧補.

있던 스님이 다산을 존경하여 초당 곁에 조그마한 움막을 짓고 다산의 식사를 준비하였다.[32] 그렇게 해서 다산은 식생활에도 불편함이 없자 책을 읽고 저술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32) 박석무(2003), 475면.

제2절 강진에서의 교육 활동

다산은 해남 윤씨들의 지원을 받으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는 동시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강진읍에 있을 때는 아전들의 자제를 교육하였고 다산 초당으로 옮긴 뒤에는 대부분 양반집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다산은 강진 유배지에 있을 때에 거처가 모두 네 곳이었는데 주막 노파의 집, 보은산방, 제자 이청의 집, 마지막으로 초당이었다. 이 네 곳은 모두 다산의 교육과 관련된다.

먼저 주막 노파의 집에서는 1801년 11월 말부터 1805년 가을까지 머물렀다. 이때에 다산의 명성을 듣고 강진 읍내의 아이들이 찾아왔다. 다산은 그들을 교육시킬 곳이 필요했다. 유배 초기라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다산은 1804년 정월 초하루에 자신이 쓰던 방을 '四宜齋'라 이름 붙였다. 아마도 다산은 본격적으로 이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강학할 곳을 '사의재'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산은 1804년 봄에 『兒學編訓義』를 완성하였다. 『아학편훈의』를 짓고 다산이 형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 선생(정약전)께서 지으신 『蒙學義彙』가 왜 정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편집한 『아학편』 2권은 2천 자로 한정하여 상권에는 형태가 있는 물건의 글자를, 하권에는 物情과 事情에 관계되는 글자를 수록하였으며, 여덟 글자마다 『천자문』의 예와 같이 1개의 운을 달았습니다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33]

다산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소학주천』과 『아학편』을 지었다. 그래서 형이 흑산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은 『蒙學義彙』보다는 자신이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지은 책을 교재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보낸 편지다. 『아학편』은 『천자문』이 아이들의 체계적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다산이 직접 편집한 것이다. 이것은 다산이 유배 초기에 읍중 제자들을 위하여 강의 교재로

---

33) 「上仲氏(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5면.
先生所著蒙學義彙 豈不精嚴 而我所輯兒學編二卷 限之以二千字 其上卷有形之物也 其下卷物情事情也 每八字一韻 如千文之例 未知如何.

편찬했던 책이다.

두 번째로, 1805년 겨울부터 1806년 가을까지 다산은 보은 산방에서 머물렀다. 다산은 1805년부터 아암 혜장을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되면서 그의 주선으로 보은 산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단지 노파의 주막보다 보은 산방이 훨씬 조용하고 쾌적해서 거처를 옮긴 것은 아니었다. 바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옮긴 것이다.

> 겨울에 큰아들 학연이 와서 뵈었다. 이에 보은산방에 나가 밤낮으로 『주역』과 『예기』를 가르쳤다.[34]

1805년에 장남 학연이 강진에 찾아오자 다산은 조용하고 좋은 환경에서 『주역』과 『예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은 산방으로 옮겼던 것이다.

세 번째로 1806년 가을부터 1808년 봄 다산 초당으로 옮기기 전까지 제자 이청의 집에서 머물렀다. 아전의 아들이었던 이청의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다산의 읍중 제자 6명 중에 이청만이 초당으로 와서 계속 배웠던 것을 보면 이청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산은 이청의 집에 머물면서 흔쾌를 그를 가르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산초당은 앞에서 살폈듯이 윤단의 손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윤단과 그의 아들 윤규로가 다산을 초청한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고 저술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1. 초기의 邑中 제자

다산이 「다신계절목」을 작성한 1818년에 읍중 제자들은 이청만 남고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다산은 그들을 기억하고 싶어 다신계는 아니지만 「다신계절목」에 읍중 제자들을 첨부하였다. 다산이 강진읍에 있을 때는 유배초기라 매우 힘들었던 상

34)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296면.

황이었고 초당에서는 그나마 세월이 지나고 땅도 소유하여 비교적 편하게 지냈던 시기였다. 힘들 때 친구들이 더 많이 생각나듯 다산은 읍중 제자들이 많이 생각났다.

> 내가 처음 도착하자 주민들이 너나없이 벌벌 떨며 문을 닫고 받아주려 하지를 않았다. 이 지경에 당해서 나를 친근히 하였던 사람은 孫·黃 등 4인이다. 읍중의 諸生들은 우환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 하겠다. 다산의 여러 사람들은 그래도 다소 평안해진 뒤에 만난 이들이다. 읍중 제생들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다신계 문건의 말미에 읍중 제자 6인을 기록하여 후세의 증빙자료를 삼도록 한다.[35]

윗글은 다산이 직접 쓴 「다신계절목」이다. 다산이 강진 땅을 떠나기 직전인 1818년 8월 그믐날, 여러 제자들과 작별을 아쉬워하며 修契형식의 모임을 결성했는데 그것이 다신계다. 이에 그 모임의 취지, 참가자 명단, 규약 등을 담은 「다신계절목」이란 문건이 작성되었다.[36] 비록 다신계는 아니지만 다산은 읍중 제자들을 잊지 못하여 뒤에 첨부하도록 부탁하였던 것이다.

읍중 제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손병조(孫秉藻)
> 황상(黃裳, 1788~1863?) 號는 巵園處士
> 황취(黃聚) 號는 醉夢齋
> 황지초(黃之楚) 號는 硯菴
> 이청(李晴, 1792~1861) 李鶴來, 李琴招라고도 함.
> 김재정(金載靖)

다산은 이들을 '邑中 諸生'이라고 불렀다. 이 6명 중에서 황상과 이청만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상당한 성취를 이루고 나머지는 몇 년 지나 그만두었다.

---

35) 「다신계절목」.
始來之初 民皆恐懼破門壞墻 不許安接 當此之時 其爲左右者孫黃等四人也 由是言之 邑人是與共憂患者也 茶山諸人猶是稍平後相知者也 邑人何可忘也 玆於茶信契憲之末又錄邑人六員 以爲徵後之文.

36)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제21집, 한국한문학회, 1998, 116면.

먼저 황상은 강진에서 다산과 처음 제자의 연을 맺은 인물이다. 다산이 유배 온 후 아무도 그를 찾아와주지 않을 때 그 이듬해(1802)에 아전의 아들이었던 15세의 황상이 찾아왔다.

> 내가 山石(황상의 아명)에게 문사를 닦도록 권하니 그는 머뭇머뭇 부끄러운 표정을 짓더니 "저는 세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鈍하고 둘째로 막혀있고, 셋째로 어리석습니다." 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이르기를 "공부하는 자에게 큰 병통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너에게는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구나. 첫째 외우기를 빨리하면 그 폐단은 소홀히 되며, 둘째 글쓰기에 빠르면 그 폐단은 부실하게 되고, 이해를 빨리하면 그 폐단은 거칠게 된다. 무릇 둔하면서 파고드는 자는 그 구멍이 넓어지며, 막혔다가 소통이 되면 그 흐름이 툭 트이며, 어리석음을 닦아내면 그 빛이 윤택하게 되는 법이다. 파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하는 것이요, 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하는 것이요, 닦기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하는 것을 어떻게 다할 수 있는가. 바로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37]

황상이 처음 다산에게 배움을 청하였을 때 다산은 비록 그가 아전의 아들이었지만 장래를 촉망했기에 '三勤戒'를 지어 주었다. 이후 황상은 평생토록 이 말을 간직하였다. 하지만 황상은 얼마 뒤에 부친이 앓다가 고질병이 되자 공부를 그만두고 의술을 잡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책 읽을 겨를조차 없었다.[38] 이렇게 되자 다산은 부지런하고 文才가 뛰어난 황상이 집안 사정으로 공부할 수 없게 된 것을 무척이나 가슴아파하였다. 하지만 황상은 학문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였고 다산이 해배 후에도 다산을 뵈러 3차례 왕래하였다. 그래서 1848년에 황상은 다산家와 「丁黃契」를 결성하여 개인적인 교유를 넘어, 두 가문의 교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또, 황상은 다산가와 친해지면서 서울의 여러 문사들과도 두루 교유하게 되면서 그의 시적 능력도 인정받게 되었다.

---

37) 황상, 「壬戌記」, 『치원유고』 권5.
余勸山石治文史 山石逡巡 有媿色而辭曰 我有病三 一曰鈍 二曰滯 三曰憂 余曰學者 有大病三 汝無是也 一敏於記誦 其弊也忽 二銳於述作 其弊也浮 三捷於悟解 其弊也荒 夫鈍而鑿之者 其孔也闊 滯而疎之者 其流也沛 憂而磨之者 其光也澤 曰鑿之奈何曰勤 疎之奈何曰勤 磨之奈何曰勤 曰若之何其勤也 曰秉心確.

38) 황상, 「贈巵園三十六韻序」, 『巵園處士遺稿』 부록.
未幾 以親瘠久痼 家貧弟幼 遂辭筆硯而執刀圭 及夫當室 益無暇於估畢.

시편의 일에 대해 추사의 말이 "내가 탐라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시 한편을 보여주는데, 다산의 高弟가 지은 것임은 불문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黃某라고 합디다. 그 시를 음미해보니 두보를 골수로 하고, 한유를 뼈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산의 제자들을 두루 헤아려볼 때 鶴(이청)이하 누구도 이 사람을 대적할 자 없지요"라 합니다.39)

秋史 金正喜가 제주도에서 올라와 정학연에게 했던 말을 학연이 황상에게 전한 편지이다. 당대 최고 학자인 추사가 황상의 시를 인정했을 정도니 황상은 비록 다산에게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다산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1805년 이청도 황상과 함께 14세의 어린 나이에 다산을 찾아오는데, 다산은 그의 영특함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시험삼아 한 마디를 꺼내 묻기를
"大자와 羊자가 합하여 '奎'(달)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작은 염소라고 하느냐?"
하니 그가 즉시 그 소리에 응답하여
"凡자와 鳥자가 합하여 '鳳'(봉)자가 되었기 때문에 神鳥라고 합니다."
하였는데 그의 총명이 이와 같았다. 그의 시는 굳건한 기상이 조금 부족하지만, 세월을 두고 더 연마한다면 아마 손색이 없을 것이다.40)

이청이 다산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읍중 제자들 가운데 오직 이청만이 초당의 제자들과 다산에게서 배우면서 다산이 책을 저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산은 이청에게 『大東水經』41)의 주를 달게 하였는데 이청은 문헌을 광범위하게 섭렵하여 산과 강의 역사적 고증에 예리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또한 형 정약전의 저술인 『玆山魚譜』에도 『대동수경』과 마찬가지로 '晴案'(이청이 살펴보건대)이 들어가 있다. 다산은 자기 형의 이 저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이 흑산도에서 고

39) 황상, 「酉山書別紙」, 『치원유고』 부록.
詩篇事 秋史曰 在耽時 有一人 示一詩 不問可知 爲茶山高第 故問其名曰 黃某 味其詩 卽杜髓而韓骨 歷數茶山弟子 自鶴也也以下 皆無以敵此人.

40) 「題李琴招詩卷」, 『與猶堂全書』 제1집, 권14, 46면.
試拈一話云大羊爲奎 何謂小羊 琴招應聲云凡鳥爲鳳 故稱神鳥 其慧如此 其詩頗欠氣岸 加之以歲月之工 庶其該洽有進也.

41) 『大東水經』은 다산이 1814년 완성한 책으로 우리 국토에 대한 책이다.

증할 만한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것을 알고 이청에게 고증 작업을 맡겼다. 그리고 이청에게 『尙書古訓』6권과 복생 이하와 마융, 정현 이상의 구양, 夏侯, 王塗, 반고, 유향의 여러 설과 『좌전』이하 漢, 魏 이상 제자백가의 『서경』에 관한 학설들을 편집하게 하였다.42) 또한, 다산은 이청에게 편집하고 주를 다는 일 이외에도 『시경강의보』와 『악서고존』을 받아쓰게 하였으니 속기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이렇게 이청은 그의 총명함을 인정받아 다산의 저술에 시종일관 참여하였고 다산의 저술이 나오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하지만, 읍중 제자 중에서는 황상과 이청 말고는 크게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다. 아마도 신분적 제약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다산은 서운한 심정을 형에게 보냈다.

> 읍내에 있을 때에 아전 아이들 중에 배우러 왔던 사람이 4, 5명 되었는데 거의 모두가 몇 년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단정한 용모에 마음도 깨끗하고 筆才는 상급에 속하고 글 역시 중급 정도의 재질을 가졌었는데 꿇어앉아서 理學을 공부하였습니다. 만약 머리를 숙이고 힘써 배울 수 있었다면 이청과 더불어 서로 짝이 맞을 것 같았는데 어쩐 셈인지 혈기가 매우 약하고 비위가 아주 편벽되어 거친 밥이나 맛이 변한 장은 절대로 목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를 따라 다산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미 폐학한 지가 4년이 되는데 서로 만날 때마다 탄식하며 애석해합니다.43)

다산은 재주가 있는데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 매우 아쉬워했다. 그것은 몸이 허약한 탓도 있었겠지만 다산 초당으로 옮기면서 제자들이 양반집 자제들로 바뀌자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

42) 「上仲氏(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6면.
尙書古訓六卷 乃伏生以下馬鄭已上 歐陽夏侯王塗班劉諸說 及左傳以下漢魏以上諸子百家之書說也 此則晴也所輯.

43) 「上仲氏(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1면.
在邑中時 吏家兒來學者四五人 悉皆數年而廢 有一兒貌端心潔 筆則上才 文亦中才 跪而爲理學 若能屈首力學 則與晴也互有長短 其奈血氣甚弱 脾胃甚偏 卽欑飯敗醬 萬不能下咽 以此之故 不能從我於茶山 今已四年廢學 每一相見 嗟嗟惜惜.

2. 후기의 茶信契 제자

1808년 봄 윤단의 山亭이었던 다산초당으로 옮긴 다산은 다산초당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학생들에게 『周易』을 가르쳤다. 제자들과 학문이 통해지자 주역의 뜻을 가지고 서로 더불어 어려운 점을 물어 「茶山問答」1권을 지었다.[44]

본격적으로 다산은 다산諸生과 더불어 학문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장으로 다산초당을 열게 되었다. 다신계 제자 18명의 명단 및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유회(李維會, 1784~1830) 이강회의 형, 이보만의 5대손
이강회(李綱會, 1789~?) 字는 굉보
이기록(李基祿, 1780~?)
정학가(丁學稼, 1783~1859) 학연, 다산의 장남
정학포(丁學圃, 1786~1855) 학유, 다산의 차남
정수칠(丁修七, 1768~?) 장흥 반산에 후손이 살고 있음
윤종문(尹鍾文, 1787~?) 字는 혜관
윤종영(尹鍾英, 1792~?)
※윤종기(尹鍾箕, 1786~1841)
※윤종벽(尹鍾璧, 1788~1837) 字는 윤경, 윤종억
※윤종삼(尹鍾參, 1798~1878)
※윤종진(尹鍾軫, 1803~1879)
※윤종심(尹鍾心, 1793~1853) 윤동
※윤종두(尹鍾斗, 1798~1852)
윤자동(尹玆東, 1791~?)
윤아동(尹我東, 1806~?)
이택규(李宅逵, 1796~?) 이승훈의 아들
이덕운(李德芸, 1794~?)[45]
※는 윤단의 손자

먼저 이유회, 이강회 형제는 서울 출신으로 다신계 명단의 제일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제자는 동생 이강회이다. 다산은 "紘父(이강회)가 과거 공부로부터 돌아와 발분하여 경학과 예학의 분야에 몸을 바치고 있는데 그를

44)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299면.

45) 임형택, 앞의 논문 126~127면 참조.

가르치려다 보니 안경을 쓰지 않고는 임할 수 없게 되었다[46]"고 기록하였다. 또 "1813년 『논어고금주』를 쓰는 것을 도왔다[47]"고 하였으니 분명 경학에 밝았을 것이다. 그리고 1817년 『상의절요』를 완성하는데도 6편 중에서 하1편이 이강회의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이것은 이강회가 경학뿐 아니라 예학에도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다산은 1816년 6월, 형 정약전이 죽자 애통한 심정을 이강회와 두 아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낸 바 있는데[48], 이것은 다산의 학문적 역량을 알아주었던 정약전의 대리자로서 이강회를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18명의 제자 중에 10명이 해남 윤씨이다. 윤종기, 윤종벽, 윤종삼, 윤종진은 초당의 원 주인인 윤단의 장남 윤규로의 네 아들이고 윤종심, 윤종두는 차남 윤규하의 두 아들이다. 제자 중에 윤단의 손자가 6명인 것은 앞에서 살폈듯이 윤단과 장남 윤규로가 다산을 초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종문과 윤종영은 해남 연동 출신으로 다산의 외가 사람이고 윤자동과 윤아동 형제는 강진군 보암의 율정 마을의 윤씨이다.

윤규로의 아들 윤종벽(윤종억)과 윤규하의 아들 윤종심에게 각각 하나씩 다산이 남긴 증언이 있다. 윤종심에게는 "부자라고 부러워할 것이 없으며, 貧者라고 어찌 슬퍼할 것인가. 그러니 가난하다고 근심하지 말라.[49]"라고 하였고 윤종억에게는 "생활 수단의 방법으로서 園圃와 목축이 가장 좋고 보리는 심지 말라[50]"라고 하였다. 다산은 이들이 모두 윤단의 손자들이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지고 글을 남겨주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윤종심(윤동)은 『논어고금주』를 완성하는 데 큰 몫을 하였고, 다산 저

---

46) 「答仲氏(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1면.
紘父自科還 發憤歸身於經禮之學 爲其所困 不得不著靉靆而臨之.

47)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18면.

48)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29면.

49) 「爲尹鐘心贈言」, 『與猶堂全書』 제1집, 권17, 42면.
所謂富者豈足羨 所謂貧者豈足悲哉.

50) 「爲尹輪卿鐘贈言」, 『與猶堂全書』 제1집, 권18, 2면.
故治生之術 莫如園圃畜牧及鑿爲陂池渟沼 … 種麥天下之拙算也.

술의 2/3 가량을 필사하였다. 그리고 다신계 조직의 주동이 되었고 그의 현손인 尹在瓚은 초당의 역사를 후인들에게 전해 주었다.[51]

1810년부터 해배될 때까지 다산의 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신계 제자와 교유한 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수칠에게 준 시 한편만 남아있다.[52] 정수칠(1768~?)은 다산계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다산과 비슷한 나이로 강진의 인근 고을인 장흥사람이다. 다산이 시를 주었을 때는 1807년으로 정수칠의 나이 40세였다. 그는 비록 다산과의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지만 다산의 학문을 일찍이 흠모하여 따랐다. 그래서 다산 은 정수칠에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학문에 정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시골에 사는 사람이 그 자제가 혹 총명하고 민첩한 지혜를 가져서 남보다 몇 등이나 뛰어난 말을 하여 사람을 경탄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곧 그에게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일찌감치 학문의 길로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농사짓는 일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비록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자라도 나이가 30이 넘도록 이룬 것이 없으면, 즉시 마땅히 학문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낭패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된다는 말은 큰 용기가 아니면 이 계율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나이가 40~50이 된 자는 할 수 있다. 혹 고요한 밤에 잠이 없이 愀然(추연)히 도를 향하는 뜻이 나거든 이러한 기회에 더 확충하여 용감히 나가고 곧게 전진할 것이지 노쇠하다고 그만두는 것은 옳지 않다.[53]

이 글을 주었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해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807년 전후가 될 것이다. 그럼 정수칠의 나이는 마흔 정도이므로 다산은 제생들에게는 과거에만 힘쓰라고 하였지만[54] 정수칠에게만은 도를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고 늙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다산은 제자들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였다.

---

51)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19면, 주 402 참조.

52) 「對雨示逵典」,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19면.

53) 「爲盤山丁修七贈言」, 『與猶堂全書』 제1집, 권17, 39면.
居鄉者其子弟或有聰明敏慧 超人數等 發語驚人者 便當使之習擧業 不爾者 早歸學問 不爾者 歸農焉可也 雖聰慧者 年過三十無成 卽當專意學問 庶不至狼狽也 朝聞道夕死 非大勇不能踐斯戒 然年至四五徒十者 猶可及焉 或靜夜無寐 有愀然向道之意 便當因此機會擴充之 勇往直前 不當以衰老而沮止也.

54) 「爲茶山諸生贈言」, 『與猶堂全書』 제1집, 권18, 3면.
諸君且以科宦爲心 毋生外慕.

다산은 저술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청과 이강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둘뿐만 아니라 다산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저술에 참여했다. 다음 기록을 보자.

> 공은 20년 가까이 고독하고 우울한 심경으로 지낼 때 일찍이 다산 초당에서 연구저술에 마음을 기울여 여름의 무더위에도 쉬지 않고 겨울밤엔 닭의 울음을 듣곤 하였다. 그 제자들 가운데, 경전을 열람하고 역사서를 탐색하는 자가 두어 사람, 부르는 대로 받아쓰는데 붓 달리기를 나는 듯 하는 자가 두세 사람, 손을 바꾸어가며 수정한 원고를 정서하는 자가 두세 사람, 옆에서 거들어 줄을 치거나 교정·대조하거나 책을 매는 작업을 하는 자가 서너 사람이었다. 무릇 어떤 저술을 시작할 때면 먼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되 서로서로 대비하고 이것저것 훑고 찾아 마치 빗질하듯 정밀을 기했던 것이다.[55]

이렇게 고도로 숙달된 제자들은 마치 공장의 기계를 조립하듯 각자 맡은 부분을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다듬어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다산은 제자들을 교육하는 한편, 제자들의 도움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55)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57면.

제3절 승려와의 교유

다산의 강진 유배 기간 중 승려 아암 혜장과의 교유는 다산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1805년 4월 18일 주막에 기거하던 다산은 만덕산 백련사를 유람하던 길에 승려 아암 혜장 선사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 신유년(1801) 겨울에 나는 강진으로 귀양 갔다. 5년이 되던 해(1805) 봄에 아암이 와서 백련사에 묶으며, 애타게 나를 만나고자 하였다. 하루는 내가 노인을 따라 신분을 감추고 가서 그를 만나 그와 더불어 한나절까지 이야기했으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가겠노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北菴에 이르렀을 때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암이 헐레벌떡 쫓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하면서 말하기를
> "公(다산)께서는 어찌 이처럼 사람을 속이십니까? 공은 丁大夫 선생이 아니십니까? 저는 밤낮으로 공을 사모하였는데 공이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 하였다. 그러면서 손을 끌어 그의 방에 가서 묵게 하였다.[56]

다산과 혜장은 만나기 전부터 서로의 명성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뜻이 통하여 학문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 때 혜장이 『주역』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하자 다산은 혜장이 宿儒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혜장은 다산의 학문에 많이 미치지 못했던 듯 "우물 안 개구리와 초파리는 진실로 스스로 슬기로운 체 할 수 없구나!"라고 경탄하여 다산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 샀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다산은 1805년 겨울부터 1806년 가을까지 강진 읍내의 주막집을 떠나 강진읍이 내려다보이는 보은 산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형편도 조금 나아졌다.

牛頭峰下小禪房	우두봉 아래 조그만 선방
竹樹蕭然出短墻	대나무만 쓸쓸하게 담장위로 솟았구나

56) 「兒菴藏公塔銘」, 『與猶堂全書』 제1집, 권17, 6면.
嘉慶辛酉冬 余謫康津 越五年春 兒菴來栖于白蓮社 渴欲見余 一日余從野老 匿跡往見之 與語半日 不知爲誰 旣告別 轉至北菴 日將夕 兒菴蹣蹣然追至 叩首合掌而言曰公何欺人至此 公非丁大夫先生乎 貧道日夜慕公 公何忍如是 於是携手至其房宿焉.

裨海風潮連斷壑	바다의 바람과 조수 낭떠러지에 연해 있고
縣城煙火隔重岡	고을 성의 연기와 불빛 산이 겹겹 막았어라
團團菜榼隨僧粥	둥그런 나물통은 스님 밥자리 따르고
草草經函解客裝	볼품없는 책상자 나그네 행장일세
何處靑山未可住	어느 곳 청산인들 거주하지 못할쏘냐
翰林春夢已微茫	한림원의 봄꿈이야 이미 아득하구나[57]

다산이 보은 산방으로 옮긴 후 지은 시다. 다산은 책 몇 권에 볼품없는 행장으로 보은 산방에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다산은 강진읍에서 거주할 때보다는 멀리 바다가 보이고 아담한 마을이 보이는 산방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예전 임금을 모시고 벼슬살이할 때가 그립기는 하나 꿈처럼 아득한 일이어서 청산과 같은 산방에 머물고자 한 것이다.

혜장은 다산이 보은산방과 다산초당에 머물 때 자주 찾아왔다. 혜장이 다산보다 열 살 아래였지만 다산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벗이었다. 다산이 강진에서 남긴 시 중에서 유독 혜장에 관한 시가 많다.[58] 또한 혜장이 죽자 비문도 써 주고 형에게 보낸 편지에도 혜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혜장은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 배운 지 몇 년 만에 승려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아져 여러 곳에서 그를 만나러 올 정도였다. 하지만 다산은 그런 혜장에게 아이처럼 유순해지라고 충고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호를 兒菴이라고 했다.[59] 그것은 혜장이 젊었을 때 많은 명성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 경솔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산이 혜장에게 충고만 해줬던 것은 아니다.

---

57) 「題寶恩山房」,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13면.

58) 『여유당전서』에 실린 혜장에 관한 시는 13수이다. 「贈惠藏上人」, 「次韻寄惠藏」, 「寄贈惠藏上人乞茗」, 「藏旣爲余製茶 適其徒賾性有贈 遂止不予 聊致怨詞 以徼卒惠」, 「憶昔行寄惠藏」, 「懷檜七十韻寄惠藏」, 「惠藏至高聲寺 遣其徒相報 余遂往逆之 値小雨留寺作」, 「送惠藏」, 「立春後三日 余在寶恩山房 藏上人見過 小雪初霽 山夜淸寂 戲爲聯句 以述其事 學稼與焉」, 「宿修道菴 惠藏不期而至」, 「五月七日 余在寶恩山房 藏公携酒相過 厚意也 拈周易坎六四韻 與之酬酢」, 「惠藏至」, 「四月一日 惠藏至 欲偕游白蓮社 爲念供具已之悵然有作」.

59) 「兒菴藏公塔銘」, 『與猶堂全書』 제1집, 권17, 7면.
兒菴性倔強 余曰子能致柔如嬰兒乎 於是自號曰兒菴.

矯矯賢豪志	굳건하고 어질고 호탕한 사람
飄然時出林	때로는 표연히 산을 나선다네
雪消厓徑滑	눈 녹아 비탈길은 미끄럽고
沙繞野堂深	모래 둘러싸여 들집이 움푹하네
滿面山中樂	얼굴에는 산중의 즐거움 가득하고
安身歲暮心	세월따라 몸은 변하지만 마음 안 쓴다네
末流多鄙薄	말세 인심 대개가 비루하고 야박한데
眞率見如今	지금 이렇게 진실 솔직한 자도 있다네[60]

1807년 봄에 혜장은 눈 녹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험한 비탈길을 따라 다산을 찾아왔다. 다산은 힘들게 자신을 찾아와 준 혜장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래서 세상의 야박한 인심에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진솔함을 지켜준 혜장을 칭찬한 것이다. 또한 다산은 혜장과 학문적 교류도 하였다.

相携入寺門	손 맞잡고 절문 안에 들었더니
餘濕霑初筵	습기가 자리에 배어들었지
幸無村墅客	자리에 다행히 낯선 객이 없기에
縱談若奔川	시내가 흐르듯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以我詩書易	우리의 시경, 서경, 주역으로
博爾華楞圓	그대의 화엄, 능엄, 원각경에 박학하였네
霏屑落層空	이야기는 공중에서 술술 쏟아 내렸고
咳唾皆幽玄	한 마디 한 마디가 현묘한 이치였기에
四座寂不動	자리는 쥐죽은 듯 조용하였고
出淚感其天	천성을 되찾은 눈물을 흘렸었지
因知廣額屠	이에 알겠도다. 廣額屠가
立地可通禪	금방 禪道를 통할 자인 줄을[61]

비가 와서 다산과 혜장, 그리고 여러 승려들이 고성사에 모여 있었다. 혜장은 유교의 경전에 해박하고 또한 불교의 경전까지 박식하였다. 혜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여러 승려들은 혜장의 말에 감복하여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광액도가 금방 선도를 통하듯 혜장도 선도를 금방 통했다고 한 것이다. 한편 혜장은 유독 『

60) 「惠藏至」,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19면.

61) 「惠藏至高聲寺 遣其徒相報 余遂往逆之 値小雨留寺作」,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10면.

주역』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산이 혜장을 위해 지은 만사의 일부분을 보자

墨名儒行世俱驚	이름은 중 행동은 선비라 세상이 모두 놀랐거니
怊悵華嚴舊主盟	슬프다 화엄의 옛 맹주여
一部魯論頻盥手	『논어』 자주 읽었고
九家周易細研精	九家의 『주역』 상세히 연구했네
凄涼破衲風吹去	찢긴 가사 처량히 바람에 날려가고
零落殘灰雨洒平	남은 재 비에 씻겨 흩어져 버리네
帳下沙彌三四五	장막 아래 몇몇 사미승
哭臨去聲猶復喚先生	선생이라 부르며 통곡하네

(年來篤好論孟 諸僧嫉之 號曰金先生) (근래 『논어』 『맹자』를 독실히 좋아했으므로 중들이 미워하여 김선생이라 불렀다)62)

혜장은 다산을 만났을 때부터 『주역』에 심취하여 다산에게 많이 배웠다. 九家의 『주역』은 9인의 『주역』 주석서인데, 혜장은 수많은 『주역』 주석서들을 탐독하였다. 또한, 혜장은 승려이면서도 유가의 경전을 부지런히 읽어 다른 승려들에게 미움을 받아 김 선생이라고도 불렸다. 게다가 혜장이 죽은 결정적 원인도 술병에 있었는데 그것 역시 다른 승려들로부터 혜장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몇몇 사미승들의 눈물로 위안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혜장이 다른 승려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탐독한 끝에 얻은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다산의 학문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내가 다산에 살게 되면서부터 그가 찾아오는 것이 더욱 잦아 정미한 말고 오묘한 뜻을 크게 부연할 수 있었다.63)

다산이 초당에 옮겨 살면서 혜장이 머물고 있던 백련사와의 거리가 무척 가까웠다. 그래서 다산은 혜장과 자주 만나며 『주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역』에 관한 저서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

---

62) 「答仲氏(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7면.

63)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18면.

다산은 혜장과의 교류가 빈번해지자 자연스럽게 혜장의 제자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혜장의 제자였던 袖龍 賾性(수룡 색성)이 차를 보내오자 감사의 표시로 시를 지었다.

藏公衆弟子	혜장의 많은 제자들 중에
賾也最稱奇	색성이 가장 기걸하다네
已了華嚴敎	화엄 교리를 이미 터득하고
兼治杜甫詩	두보의 시까지 배운다네
草魁頗善焙	좋은 차도 꽤나 잘 만들어서
珍重慰孤羇	진중히 외로운 나그네 위로한다네[64]

혜장의 제자인 수룡 색성도 혜장과 마찬가지로 학문적 구속을 받지 않고 『화엄경』뿐 아니라 두보의 시도 다산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혜장의 제자인 騎魚 慈弘(기어 자홍)은 스승이 죽은 뒤에도 다산을 잘 따랐다.[65] 다산은 자홍에게 증언을 한 편 지어주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만 신경을 쓰고 道를 기르는 일을 등한시한다고 하여 도를 기르도록 당부하였다.[66] 이 둘은 스승의 유불에 구애되지 않은 학문적 식견으로 다산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 수룡·체경은 또한 방외로 학연을 맺은 자들이다. 전등계 전답이 만약 우려한 일이 있을 시에는 읍중에 알려 읍중으로부터 주선과 보살핌을 받도록 할 것이다.[67]

수룡과 掣鯨(체경)은 모두 혜장의 제자들이다. 다산은 「다신계절목」을 통해 그들이 모두 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였다. 이들은

---

64) 「謝賾性寄茶」,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6면.

65) 금장태,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이끌리오, 2005. 195면.

66) 「爲騎魚僧慈弘贈言」, 『與猶堂全書』 제1집, 권18, 45면.
吾聞君子憂道不憂貧 養其大體曰道 不能養其小體曰貧 鄒夫子善養吾浩然之氣 其言曰是氣也 配義與道 無是則餒 是氣之餒 其可憂誠有甚於是體之饑 斯其所以所憂在此而不在彼也.

67) 「다신계절목」.
袖龍掣鯨輩 亦方外之有緣者也 其傳燈契田沓 如有可憂之事 入告邑中 自邑中周旋顧護.

스승이 죽은 후에도 계속 다산에게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흥사의 학승이었던 斗云의 요청으로 『挽日菴志』를 서첩에 써주기도 하고 그 머리글 「題挽日菴志」를 짓기도 하였다. 또한 만일암을 중수하였을 때 기문도 지어주었다.[68] 다산은 강진에 있으면서 인근 지역의 승려들과 자주 교유를 하며 친하게 지냈던 것을 알 수 있다.

草依 意恂(1786~1866)은 다산보다 24세 연하로 다산이 1809년 대흥사를 찾아가서 돌아올 때 초의는 다산을 '籜翁(탁옹) 선생'이라 일컬으며 그에게 작별의 시를 지어 올렸다.

豈謂窮海曲	어찌 궁벽한 바닷가라고 말하리
天降孟母隣	하늘이 맹자 어머니 곁에 있게 했네
德業冠邦國	선생의 덕업은 나라의 으뜸이었고
文質兩彬彬	학문은 빛나고 빛나 아름다우며
燕居恒抱義	거처할 때는 항상 의를 품으셨고
經行必戴仁	절조가 있고 반드시 仁을 받드셨네
旣滿如不盈	이미 가득 찼는데도 차지 않은 것 같아
常以虛受人	항상 비어 있어 사람들을 수용하셨네
君子貴遇時	군자는 때를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만
不遇亦不嚬	못 만나도 또한 찡그리지 않으셨네
道大本不容	도가 큰데도 본래 쓰이지 못하셨고
流落且閭閭	유배되었으나 온화하고 삼가셨네
我爲求此道	저에게 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遠來致恂恂	멀리서 오신 그 진실한 모습이시어
且將違座側	이제 곁에서 모실 수 없게 되었으니
摳衣請諄諄	옷자락 붙잡고 공손히 드릴 말씀은
儻贈謝車言	많은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鏤肝復書紳	잊지 않고자 간에 새기고 큰 띠에 적어 둡니다[69]

초의는 다산이 큰 도를 품고도 때를 만나지 못해 유배 온 것을 매우 안타까워

68) 이을호, 『다산학의 이해』, 현암사, 1975, 251면.

69) 초의, 「奉呈籜翁先生」, 『草衣禪師全集』 (己巳 在大芚寺), 19~20면.

하였다. 하지만 초의는 다산의 학문적 성취나 몸가짐, 태도 등을 보고 큰 학자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늘이 맹자 어머니를 보내준 것처럼 큰 스승을 보내주었다고 비유하였다. 초의를 가르치고자 왔던 다산이 떠난다고 하자 이별을 매우 아쉬워하며 배운 것을 띠에 새겨 오래도록 잊지 않고자 하였다.

초의는 당시 대흥사에 있었는데 다산초당과 대흥사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다른 제자들처럼 매일 다닐 수는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또한, 초의는 승려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초당에서 오래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산은 초의를 직접 찾아가서 초의를 교육하였던 것이다. 또한, 다산은 초의를 직접 가르칠 수 없게 되자 1809년 8월 4일에 증언, 같은 해 10월 19일에 편지를 보내어 교육하였다.[70]

> 혹 시전을 지나가다 보면 좌상이나 행상이 다만 조그만 엽전을 가지고 와글와글 떠들면서 시장의 이끗을 독점하려고 다툰다. 이는 수많은 모기가 항아리 속에서 어지러이 앵앵거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71]

이것은 4월에 준 증언인데, 작은 깨달음에 안주하지 말고 큰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라는 당부의 의미로 천책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다산이 전한 것이다. 한편 나중에 보낸 편지는 『여유당전서』에 실리지 않은 자료인데 「示意恂讀書法」이다. 이것은 초의에게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인간 세상은 심히 바쁜데 그대는 매양 동작이 느리고 무거우니 한 해가 마치도록 書史의 사이에서 功이 매우 적다. 이제 그대에게 『논어』를 주니, 그대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마치 왕공의 엄한 조칙을 받드는 것처럼 하라. 날짜를 정해 놓고, 뒤에는 將帥가 있고 앞에는 깃발이 펄럭이듯이 황급하게 내달아라. 마치 호랑이와 교룡이 핍박하듯이 하여 조금이라도 감히 쉬거나 느리게 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의리를 깊이 탐색할 때에는 반드시 潛心하여 정연하면 마침내 그 진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72]

---

70) 김상홍, 『다산문학의 재조명』, 단국대출판부, 2003, 555면.

71) 「爲草衣僧意洵贈」, 『與猶堂全書』 제1집, 권18, 44면.
天頂禪師云或經過市鄽 見坐商行賈 只以半通泉貨 哆哆譁譁 罔爭市利 何異百千蚊蚋在一甕中.

72) 「示意恂讀書法」, 『문학사상』 49호(1976).

다산은 초의가 동작이 느려서 학문적 성과가 없자 잠시라도 태만하지 말고 긴장하여 꾸준히 공부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의리를 깊이 탐색할 때에는 潛心해야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산은 어린 제자인 초의가 열심히 하기는 하나 학문에 공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설명해 준 것이다. 다산의 저술도 이런 방식이 많았다. 그는 어떤 저술을 시작하면 밤낮을 잊고 거기에 몰두하여 잠시라도 쉬지 않고 긴장을 하여 저술을 완성하였다.

한편 초의는 승려이면서 茶道에 정통하여 우리나라의 다도를 일으킨 인물로 유명하다. 초의는 차를 따고 만드는 일에서 시작하여 차의 향과 빛깔과 맛을 분별하고, 차 도구에 관한 것까지 20항목으로 다도를 설명한 『茶神傳』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와 중국차에 관한 다도의 다양한 지식을 31頌으로 읊은 「東茶頌」을 지어 다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73] 즉, 다산이 초당에서 보여 준 다도 생활이 초의에게 다도를 정리하고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다산에게서 배운 초의는 다산의 해배 후에도 다산의 고향인 마현으로 찾아와서 다산의 아들 정학연을 비롯하여 추사 등, 이 지역의 여러 문사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폭넓게 교류하였다. 그래서 초의는 조선 후기 불교사에 큰 足跡을 남기게 되었다.

人世甚忙 汝每動作遲重 所以終歲書史之間 而勳績甚小也 今授汝魯論 汝其始自今如承王公嚴詔 刻日督迫如有將帥在後 麾旗前驅 遑遑汲汲 如爲虎狼蛟龍所逼迫 一瞬一息 無敢徐緩 有義理甚索 必潛心精硏 乃得眞趣.

73) 금장태(2005), 201면.

제3장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서찰

제1절 자녀에게 本立道生을 가르침

다산은 유배시절 특히 가족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여유당전서』에는 총 26통의 편지와[74] 1808년부터 1810년 사이에 기록된 자녀에게 준 총 9통의 家戒가 실려 있다. 다산이 자녀에게 많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로 자녀의 교육 때문이었다. 다산이 귀양 가던 해(1801)에 큰아들 학연[75]은 19세, 작은 아들 학유[76](1786~1855)는 16세였다. 기본적인 책읽기, 글쓰기는 어느 정도 익혔더라도 자립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였다. 또한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맡길 만한 상황도 못되었다. 그래서 다산은 유배지에서 어떻게 자녀를 공부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젯거리였다. 다산은 모두 6남 3녀를 낳는데 그 중에서 2남 1녀만 남고 4남 2녀는 모두 병으로 요절하였다.[77] 다산이 맡아 교육시켜야 할 자녀는 학연과 학유 둘 뿐이었다. 그래서 다산은 이 둘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열정적으로 교육하였다.

다산이 자녀에게 보낸 편지나 가계를 보면, 그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다산이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폐족의 위기에서 다산이 선택한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음주를 즐기는 둘째에게 술을 자제하고 공부에 힘쓰라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당부하였다. 또한, 다산은 편지와 가계로 자녀에게 공부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공

---

74) 장기에 있을 때 한 통, 강진에 있을 때 25통을 보냈는데, 장기에 있을 때 보낸 한 통은 사실은 한 통이 아니라 3통의 편지를 『여유당전서』에 한데 묶은 것이다.

75) 丁學淵(1783~1859), 호는 酉山, 시문에 능하고 의술에 밝았다.

76) 丁學游(1786~1855), 호는 耘逋, 「농가월령가」의 작자로 잘 알려져 있다.

77) 「農兒壙志」, 『與猶堂全書』 제1집, 권17, 5면.
凡産六男三女 生者二男一女 死者四男二女.

부를 강요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방법과 수준에 맞는 방법을 제시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훈계하였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였는지 살펴보자.

우선, 다산은 자녀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어 자녀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주었다. 1803년 새해를 맞아 보낸 장문의 편지를 보자.

> 새해가 밝았구나. 군자는 새해를 맞으면서 반드시 그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나는 소싯적에 새해를 맞을 때마다 꼭 일 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해 보았다. 예를 들면 무슨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 적어야겠다는 식으로 작정을 해놓고 꼭 그렇게 실천하곤 했다. 때론 몇 개월 못 가서 사고가 발생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좋은 일을 행하고자 했던 생각이나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78]

새해가 되어 군자의 마음가짐을 밝혔다. 군자는 새해가 되면 학문에 뜻을 두고 일 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다산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일 년 공부계획을 세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일 년의 공부 계획이 혹 실패하더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가지고 있으니 그것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산은 또 자녀가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호되게 꾸짖기도 하였다.

>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공부에 대해서 글과 편지로 수없이 권했는데도 너희는 아직 經傳이나 禮樂에 관해 하나도 질문을 해오지 않고 역사책에 관한 논의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어찌된 셈이냐?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이다지도 무시한단 말이냐? 도회지에서 자라난 너희들이 어린시절에 보고 배운 것이 문전의 잡객이나 시중드는 하인이나 아전들뿐이어서 말씨나 마음씨가 약삭빠르고 비천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못된 병이 골수에 박혀 너희 마음속에 착한 행실을 즐겨하고 공부하려는 뜻이 전혀 없는 것이다. 내가 밤낮으로 애태우며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들 뼈가 점점 굳어지고 기운이 점점 거칠어져 한두 해 더 지나버리면 온전히 나의 뜻을 저버리고 보잘것없는 생활로 빠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초조감 때문이다. 작년에는 그런 걱정에 병까지 얻었었다. 지난 여름은 앓다가 허송했다니 10월 이후로는 더 말하지 않겠다만 그렇더라도

---

78) 「寄兩兒(3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13면.
歲新矣 君子履新 必其心與行 亦要一新 吾少時每遇新正 必預定一年工課 如讀某書鈔某文 然後從而行之 或至數月之後 雖未免爲事故所奪 然其樂善向前之志 自亦有不能掩者矣.

마음속에 조금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너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영원히 폐족으로 지낼 작정이냐? 너희 처지가 비록 벼슬길은 막혔어도 성인이 되는 일이야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문장가가 되는 일이나 通識達理의 선비가 되는 일은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꺼릴 것이 없는 것뿐 아니라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을 벗어날 수도 있고, 가난하고 곤궁하여 고생하다보면 그 마음을 단련하고 지혜와 생각을 넓히게 되어 인정이나 사물의 진실과 거짓을 옳게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79)

유배 온 지 약 2년이 흘렀으나 자녀들은 경전이나 예악, 그리고 역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지 않았다. 2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긴 하나, 학문의 진보에 있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다산은 자녀 걱정에 마음이 초조하였다. 왜냐하면 가족이 풍비박산 나서 폐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폐족인데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끝내 망한 가문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래서 다산은 자녀 교육에 더더욱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다산이 자녀를 꾸짖는 것이 지나치게 준엄하다.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마음씨가 약삭빠르다느니, 못된 병이 골수에 박혔다고 하였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걱정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자녀들이 공부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온 집안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다산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성의만 가지고 있으면 과거는 보지 못하지만 문장가나 박학다식한 선비가 될 수 있고, 곤궁하다보면 人情이나 사물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하였다. 그리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인물이 되었던 몇 사람의 예를 들었다.

그런 까닭에 선배로서 율곡과 같은 분은 어버이를 일찍 여의고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얼마 안 있어 마침내 지극한 도를 깨쳤고, 우리 집안의 선조 愚潭(정시한, 1625~1707)선생께서도

---

79) 「寄兩兒(3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13면.
吾之前後勸汝曹爲學 以書以札凡幾遭矣 而未嘗以一條經傳之疑 一條禮樂之問 一條史冊之論 偶或相示 何汝輩之聽我藐藐至此之極也 汝輩生長於市井之側 幼年所接 多是門客傔從吏胥之等 口業心筭 無不儇薄鄙悖 此病深入骨髓 心中都無樂善向學之意 吾之日夕焦熬 以歸爲急者 以汝輩骨漸硬氣漸悍 差過一二年 便成大不肖生活也 前年自此得病 去三夏遂以病患度了 十月以後 又不論 若在可恕也 然心中苟有一半分誠意 雖干戈亂離之中也 必有進步處 家無書乎 身無才乎 耳目不聰明乎 何故欲自暴而自棄耶 以爲廢族耶 廢族唯於科宦有忌耳 以之爲聖人無忌也 以之爲文章無忌也 以之爲通識達理之士無忌也 不唯無忌 抑大有勝焉 以無科擧之累而貧困窮約之苦 又有以鍛鍊其心志 開撫其知慮 而周知人情物態誠僞之所形也.

세상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서 더욱 덕이 높아졌고, 성호 선생께서도 난리를 당한 집안에서 이름난 학자가 되었으니, 이분들 모두가 당대의 고관대작 집안의 자제들이 미칠 수 없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너희도 일찍부터 들어오지 않았느냐? 폐족에서 재주있는 걸출한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늘이 재주있는 사람을 폐족에서 태어나게 하여 그 집안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귀 영화를 얻으려는 마음이 근본정신을 가리지 않아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궁리하여 진면목과 바른 뼈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80)

율곡과 우담 정시한, 그리고 성호 선생이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궁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산은 위기가 기회가 되듯 어렵다고 失意하지 말고 이러한 선배들의 경험을 본받도록 자녀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폐족으로서 공부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피해가 온다고 하였다.

평민으로 배우지 않으면 못난 사람이 되고 말지만 폐족으로서 배우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도리에 어긋나고 비천하며 더러운 신분으로 타락하게 되고 아무도 가깝게 지내려 하지 않아 결국 세상의 버림을 받게 되고 혼인길마저 막혀 천한 집안과 결혼하게 되며, 물고기의 입술이나 강아지의 이마 몰골을 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집안은 영영 끝장나는 것이다.81)

평민은 배우지 않아도 그다지 해 될 것이 없지만, 폐족은 배우지 않으면 아무도 가깝게 지내려 하지 않고 혼삿길마저 막혀 천한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자녀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직접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 표현이 재미있다. '물고기의 입술'이나 '강아지의 이마 몰골'은 아마도 입술이 두꺼운 사람이나 이마가 툭 튀어 나온 사람, 즉 저능아의 일반적인 모습을 형용한 듯하다. 앞서 그렇게 자녀들을 호되게 꾸짖으면서도 나중에는 저능아를 형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

80) 「寄兩兒(3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13면.
故先輩如栗谷 以不得於親而困蹇數年 遂一反至道 亦我愚潭先生爲世所擯而彌進其德 星湖自禍家而爲名儒 皆卓然樹立 非當路綺紈子弟之所能及 汝亦嘗聞之乎 廢族多才傑之士 非天之生才而厚於廢族也 以無榮達之心爲之遮蔽 故讀書窮理 能得眞面目正骨髓也.

81) 「寄兩兒(3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13면.
平民而不學者 特爲庸劣人而已 廢族而不學 遂爲悖戾鄙穢不可近之物 爲世所棄 婚姻不通 而嫁娶及於賤流 一傳而有魚吻犬顙之子出焉 則家遂不可問矣"

위트와 유머로서 자녀들을 대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다산은 자녀에게 꼭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일러주었는데 공부에도 단계가 있으므로 먼저 근본에 힘쓰라고 하였다.

> 요즈음 학문 가운데서 예전과는 달리 오로지 反觀[82]이라 이름붙이고서 외모를 단정히 하여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을 허식이라고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약삭빠르며, 방탕하게, 그리고 마음을 풀어놓고 살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학문풍조를 듣고 세상 만난 듯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결국은 처신하는 예절에 있어 제멋대로 해버리고 만다. 나도 전에 이런 풍조에 물들어 늙어서도 몸에 예절이 익지 않아 비록 후회하여 고치고자 해도 어려우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83]

당시의 학문 태도 중에 외모를 단정히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을 허식이라 하고 실질이 아니라고 지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것이 잘못임을 알지 못하고 진실로 받아 들여 본받아서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그래서 다산은 이것은 허식이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는 근본 원리라고 주장하였다.

> 접때 너희들에게는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고 앉으며, 단정 장중하고 엄숙한 얼굴빛을 가꾸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내 습관이 한 번 더 심해져 너희들 꼴이 된 것이리라. 이 점은 성인들이 먼저 외모부터 단정히 해야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탓이다.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動容貌), 말을 하는 것(出辭氣),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正顔色), 이 세 가지가 학문을 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곳인데,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大惡, 이단이나 雜術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84]

---

82) 중국 송대의 학자 소강절이 주장한 객관적 입장의 학문 태도.

83) 「寄兩兒(3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14면.
近世一種學術 專以反觀立名 而修飾外貌者 指之爲假僞 年少儇蕩心厭拘束者 聞此皆躍然大喜 遂於起居動作之節 任情眞率 吾亦向來深中此病 到老筋骸不習 雖悔難改 甚可悔恨耳.

84) 「寄兩兒(3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14면.
向見汝都不肯整襟危坐 端莊凝肅之色 未或一見 此吾一轉而爲汝也 殊不知聖人敎人 先從外貌收將去 方纔得

다산은 학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과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논어』의 "군자가 귀중히 여기는 도가 세 가지 있으니, 몸을 움직일 때에는 사나움과 태만함을 멀리하며, 얼굴빛을 바르게 할 때에는 성실함에 가깝게 하며, 말을 할 때에는 비루함과 도리에 위배되는 것을 멀리 하여야 한다.[85]"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다산은 학문하는 방법이 멀리 있다고 여기지 않고 몸가짐, 말씨, 안색을 바르게 한 것에서 그 근본을 찾았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재주가 있고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둑이나 이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러하지 못함을 꾸짖고 자신도 반성하면서 이 세 가지로 '記'를 지어 다음 편지에 부치라고 하였다. 다음 내용에서도 서술하겠지만 다산의 교육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어떠한 일이나 생각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반성하게 하고 직접 글을 쓰게 하여 자신의 학문태도와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고는 최종적으로 다산이 직접 검토하였다. 그러나 다산은 학문보다 孝와 悌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였다.

>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근본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학문에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할 수 없으며, 학문에 뜻을 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근본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오직 효제가 그것이다. 먼저 반드시 효제를 힘써 실천함으로써 근본을 확립해야 하고, 근본이 확립되고 나면 학문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고 넉넉해진다. 학문이 이미 몸에 배어들고 넉넉해지면 특별히 순서에 따른 독서의 단계를 강구하지 않아도 괜찮다.[86]

다산은 학문하는 것 보다 효제를 중요시했다. 『논어』에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겨난다. 효와 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87]라는 구절을

安頓此心 世未有偃臥側立 胡言亂視 而可以主敬存心者也 故曰動容貌曰出辭氣曰正顏色 爲學問最初入頭處 苟不能於此三者乎用力 則雖有通天之才絶人之識 終無以著得跟立得脚 其敝也爲悖口爲戾行爲盜賊爲大惡爲異端雜術 無所止泊.

85) 「태백」, 『논어』.
君子所貴乎道者三 動容貌 斯遠暴慢矣 正顏色 斯近信矣 出辭氣 斯遠鄙倍矣.

86) 「寄二兒(2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4면.
讀書必須先立根基 根基謂何 非志于學 不能讀書 志學必須先立根基 根基謂何 曰惟孝弟是已 先須力行孝弟以立根基 則學問自然浹洽 學問旣浹洽 則讀書不須別講層節耳.

인용했는데 효제가 인을 행하는 근본이니 효제를 실천하다보면 학문은 자연스럽게 배어들고 넉넉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독서의 단계를 강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통한다고 하였다.

다산은 근본을 확립하여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으로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抄書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저술하는 방법이다. 먼저 독서할 때 세밀히 연구하고 고증하여 근본을 파헤치라고 하였으니 초서의 시작 단계가 된다.

>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무척 많은데 마구 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번 천 번을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읽은 책의 의리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깊이 명심해라.[88]

다산은 자제들에게 닥치는 대로 읽지 말고 하나하나 의미를 따져가며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르는 글자나 문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책을 계속해서 읽는다면 하나의 책을 읽을 때 수 백 가지의 책을 한꺼번에 보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기』의 「자객열전」에 있는 '旣祖就道'의 '祖'자의 의미를 예로 들었다.

> 예컨대 자객전을 읽을 때 '旣祖就道'라는 구절을 만나 "祖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으면, 선생은 "이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사에다 꼭 조라는 글자를 쓰는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다시 묻고, 선생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집에 돌아와 字書에서 '祖'라는 글자의 본뜻을 찾아보고 자서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책을 들추어 그 글자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고찰해 보고 그 근본된 뜻만 아니라 지엽적인 뜻도 뽑

---

87) 「학이」, 『논어』.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爲仁之本也.

88) 「寄遊兒」,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21면.
吾自數年來 頗知讀書 徒讀雖日千百遍 猶無讀也 凡讀書每遇一字 有名義不曉處 須博考細究 得其原根 仍須詮次成文 日以爲常 如是則讀一種書 兼得旁窺百種書 仍可於本書義理 曉然貫穿 此不可不知也.

아두고서, 『通典』이나 『通志』, 『通考』등의 책에서 祖祭의 예를 모아 책을 만들면 없어지지 않을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에는 한 가지도 모르고 지냈던 네가 이때부터는 그 내력까지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 비록 뛰어난 선비라도 祖祭에 대해서는 너와 경쟁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89]

조제에 대해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한다면 비록 아무리 뛰어난 선비라 하더라도 조제에 대해서만큼은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초서방법이다. 먼저 독서를 깊이 있게 하여 근본 이치를 따진 다음에 거기에서 모르는 것이나 중요한 것이 있으면 뽑아서 한권의 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초서가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존에 없던 책을 만들게 되어 세상에 없어지지 않을 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산은 초서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초서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자기의 뜻을 정해 만들 책의 규모와 편목을 세운 뒤에 남의 책에서 간추려내야 맥락이 묘미가 있게 된다. 만약 그 규모와 목차 외에도 꼭 뽑아야 할 곳이 있을 때는 별도로 책을 만들어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 넣어야만 힘을 얻을 곳이 있게 된다. 고기 그물을 쳐놓으면 기러기란 놈이 걸리게 마련인데 어찌 버리겠느냐?[90]

다산은 초서한다고 하여 아무것이나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책의 규모와 목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남의 책에서 간추려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혹시라도 꼭 취해야 하나 목차와는 맞지 않으면 따로 책을 만들거나 부록으로 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국 초서가 일거양득의 효과로 이어짐을 말하려는 것인데, 다산은 기러기와 그물 이야기를 비유의 방식으로 끌어와 초서를 함으로써 얻는 수확과 보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산은 초서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 속에서 어떻게 『居家四本』이라는 책을 만들

89) 「寄遊兒」,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21면.
如讀刺客傳 遇旣祖就道一句 問曰祖者何也 師曰餞別之祭也 曰其必謂之祖者何義 師曰未詳 然後歸而至其家 抽字書見祖字之本義 又因字書 轉及他書 考其箋釋 採其根本 掇其枝葉 又如通典通志通考等書 考祖祭之禮 彙次成書 便足不朽 如是則汝前爲不識一物之人 自是日儼然爲通知祖祭來歷之人 雖鴻工鉅儒 於祖祭一事 爭不得汝 豈不大樂.

90) 「寄遊兒」,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21~22면.
凡鈔書之法 必先定已志 立吾書之規模節目 然後就彼抽出來 方有貫串之妙 若其規模節目之外 有不得不採取者 須別具一冊 隨得隨錄 方有得力處 魚網之設 鴻則罹之 何舍焉.

어야 하는가를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 주자가 말하길 "화합하여 잘 지내는 것(和順)은 집안을 질서 있게 하는(齊家)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집안을 다스리는(治家) 근본이요,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起家) 근본이요, 이치를 따지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保家) 근본이라" 했으니 이것은 이른 바 네 가지 근본이다. … 너희들이 이런 편목에 의거해 정자나 주자의 책인 『性理大全』이나 『退溪言行錄』, 『栗谷集』, 『宋名臣錄』, 『說鈴』, 『昨非菴日纂』, 『宛委餘篇』 및 우리나라 현인들의 記述 중에서 자료를 모아 편집하여 차례를 잡아 3, 4권을 만든다면 좋은 책 한 권이 될 것이다.[91]

집에 거처하는 네 가지 근본은 齊家, 治家, 起家, 保家다. 이 네 가지를 편목으로 하고 정자나 주자, 퇴계, 율곡 등 현인들의 記述을 텍스트로 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편목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로 열거하였다.

> 孝弟慈, 夫和婦順,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婢僕들을 다스리는 것 등의 올바른 행실 등은 마땅히 齊家의 근본에 넣는다. 밭 갈고 길쌈하는 이야기나 입고 먹는 것의 경계될 만한 교훈, 가축 기르는 법이나 전원 가꾸는 여러 이야기는 마땅히 治家의 근본에 넣는다. 또 뜻을 세우는 일, 공부하는 일, 나쁜 일을 버리고 좋은 일을 따르는 것,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에서 책을 간수하는 일, 책을 베끼는 일, 책 읽기를 좋아하는 일, 책을 아끼는 일에 관계된 이야기는 마땅히 起家의 근본에 넣는다. 음덕을 쌓고 성내는 일을 절제하는 것, 분수에 만족하는 일, 곤궁한데 처해서도 느긋한 것, 일을 처리하는 것, 사물에 응대하는 것, 하늘이 부여한 운명을 즐거워하는 것,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것 등이나 사욕을 막고 천리를 따르는 말들은 마땅히 保家의 근본에 넣는다. 합하여 『居家四本』이라 칭하고 책상 위에 놓아두고 항상 읽는다면 어찌 심신에 크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부디 힘쓰도록 하여라.[92]

---

91) 「寄兩兒(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16면.
朱子曰和順齊家之本 勤儉治家之本 讀書起家之本 循理保家之本 此所謂居家四本也 頃有人求吾記古人格言者 以此爲門目 客中無書籍 取四五種書 抄取其名言至論 編次成書以予之 其人不省也 以爲太高而擱棄之 淆俗只堪一笑 此書遂泯可惜 汝其依此門目 就程朱書及性理大全, 退溪集, 言行錄, 栗谷集, 宋名臣錄, 說鈴, 昨非菴日纂, 宛委餘篇及我東諸賢所記述 彙次作三四卷 亦一部佳書也.

92) 「寄兩兒(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16면.
孝弟慈夫和妻順睦親戚御婢僕等 凡屬行誼之類 宜入齊家之本 若耕織之訓 衣食之戒 種畜之法 一應田園諸說 當入治家之本 若立志向學去惡趣善及格物窮理 以至藏書鈔書嗜書愛書之說 當入起家之本 若樹陰德徵忿怒 安分固窮 處事應物 樂天知命 一切遏私欲遵天理之說 當入保家之本 合而名之曰居家四本 置之案上 常目存之 豈不大有益於身心 汝曹其勉之.

이 『거가사본』의 편목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거가사본』의 편목과 내용

편 목	내 용
齊 家	孝弟慈, 夫和婦順,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婢僕들을 다스리는 것 등의 올바른 행실
治 家	밭 갈고 길쌈하는 이야기나 입고 먹는 것의 경계될 만한 교훈, 가축 기르는 법이나 전원 가꾸는 여러 이야기
起 家	뜻을 세우는 일, 공부하는 일, 나쁜 일을 버리고 좋은 일을 따르는 것,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에서 책을 간수하는 일, 책을 베끼는 일, 책 읽기를 좋아하는 일, 책을 아끼는 일에 관계된 이야기
保 家	음덕을 쌓고 성내는 일을 절제하는 것, 분수에 만족하는 일, 곤궁한 데 처해서도 느긋한 것, 일을 처리하는 것, 사물에 응대하는 것, 하늘이 부여한 운명을 즐거워하는 것,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것 등이나 사욕을 막고 천리를 따르는 말 .

실천에 옮길 구체적 행동 요령을 밝힌 다산의 교육 방식이다. 네 가지의 편목의 예시를 통해서 그는 자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였다. 물론 편지 마지막 구절에 『거가사본』을 만들어 책상에 두고 읽으면 심신 수양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산의 뜻이 전달되었겠지만, 다산의 속내와 더 밀접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구절은 바로 주자의 제가, 치가, 기가, 보가를 인용하여 자녀에게 바라고 있는 점을 낱낱이 열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산은 이처럼 자신의 뜻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이 스스로 느끼고 더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모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초서의 예시로 『주자전서』 가운데서 취택하여 『朱書余佩』를 만들도록 하였고, 나아가 顔芝의 『효경』, 마융의 『충경』, 진덕수의 『심경』을 본떠 『제경』을 만들도록 하면서 세부편목을 몇 가지로 정해주고 들어갈 내용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병서인 『備禦攷』를 만들도록 하고, 『고려사』에서 긴요한 말들을 뽑아 인편으로 부치라고 하였다. 또, 둘째아들 학유가 닭을 기른다는 말을 듣고 陸羽의 『茶經』과 유득공의 『煙經』과 같이 『鷄經』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방법도 가르쳐 주

었다.

다산은 초서를 매우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초서를 하다보면 독서하는 데 세밀히 분석하면서 읽을 수 있고, 목차와 규모를 스스로 생각하여 짜내다보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과 직접 대면하여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산은 편지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초서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독 초서하는 방법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다산은 저술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 무릇 저술하는 법은 경전에 대한 저서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은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학문이고, 국방과 여러 가지 기구에 관한 분야도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 자질구레한 이야기들로 한때의 괴상한 웃음이나 자아내는 책이라는지, 진부하고 새롭지 못한 이야기나, 지리멸렬하고 쓸모없는 의론 따위는 한갓 종이와 먹만 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손수 맛있는 과일이나 영양가 높은 채소를 심어 살아 있는 동안의 생활이나 넉넉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93]

저술은 먼저 경전과 세상을 經綸하는 것, 다음에 국방과 여러 기구에 관한 것의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경전을 중시하였고, 세상을 다스리는 책을 다음으로 삼았다. 그리고 국방이나 기타의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산이 1814년까지 대부분의 경전해석을 마치고 1817년에 『경세유표』, 1818년에 『목민심서』를 저작한 것을 참조하여 보면 자녀에게 제시한 순서와 일치한다. 그리고 괴상한 이야기나 새롭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의론들을 저작하는 것은 채소를 가꾸어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산은 저술하는 데 있어서 유의 사항을 실제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93) 「示二子家戒」, 『與猶堂全書』 제1집, 권18, 6면.
大較著書之法 經籍爲宗 其次經世澤民之學 若關防器用之制 有可以禦外侮者 亦不可少也 若夫瑣細零星之說 苟取一時之詼笑 與夫陳腐不新之談 支離無用之論 徒費紙墨 不如手植珍果佳蔬 以博生前之生理也.

저서에서 가장 신중해야 할 일은 항목을 세워 분류하는 일이다. 故實이라 한 것도 간혹 이름과 호 중간에다 나누어 실었고, 攷異라 한 것도 각 항목의 아래에다 섞어 실었다. 저서는 조례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마구 뒤섞으면 안 된다.[94]

이 내용은 다산이 『기년아람』[95]을 읽고 분류 기준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산이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좋은 책이라 생각했으나 자세히 읽어보니 마구 뒤섞여서 조례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조례의 기준을 엄정하게 세워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각각의 항목들이 그 자리에 배치된다고 하였다.

다산은 저술할 때에 분류 기준을 매우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세웠다. 한 예로 그의 역작인 『목민심서』가 어떠한 분류기준에 의해 그 항목들이 설정되었는지 살펴보자.

목민이란 무엇인가? 지금의 법으로써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律己·奉公·愛民을 3紀로 하고, 吏·戶·禮·兵·刑·工을 6典으로 하여 賑荒으로 끝을 맺었다. 각각 6조씩 편성하였는데, 고금의 사례를 찾아 배열하여 간악하고 거짓된 것을 들추어내어 지방관에게 보여줌으로써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그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공의 심정이었다. 무릇 48권이다.[96]

다산은 『목민심서』를 저술하기 전에 먼저 크게 12가지로 분류를 하였는데, 3기와 6전을 큰 뼈대로 하고 거기에 부임과 진황, 그리고 解官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그 12개의 항목에 각각 6조씩 배열하였다. 총 72조이다.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목민심서』 편목분류[97]

순 서	분류기준	편 목	내 용

94) 「寄二兒」, 『與猶堂全書』, 제 1집, 권21, 5면.
著書最謹標別 其云故實者 或分載名號之中 其云攷異者 或雜載各標之下 著書最謹條例.

95) 조선 영조 때 이만운, 이덕무 등이 지은 역사책이다.

96)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32면.

97)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32~333면.

1		赴任(부임)	除拜(제배), 治裝(치장), 辭朝(조사), 啓行(계행), 上官(상관), 莅事(이사)
2	3紀	律己(율기)	飭躬(칙궁), 淸心(청심), 齊家(제가), 屛客(병객), 節用(절용), 樂施(낙시)
3		奉公(봉공)	宣化(선화), 守法(수법), 禮際(예제), 文報(문보), 貢納(공납), 往役(왕역)
4		愛民(애민)	養老(양로), 慈幼(자유), 賑窮(진궁), 哀喪(애상), 寬疾(관질), 救災(구재)
5	6典	吏(이)	束吏(속리), 馭衆(어중), 用人(용인), 擧賢(거현), 察物(찰물), 考功(고공)
6		互(호)	田政(전정), 稅法(세법), 穀簿(곡부), 戶籍(호적), 平賦(평부), 勸農(권농)
7		禮(예)	祭祀(제사), 賓客(빈객), 敎民(교민), 興學(흥학), 辨等(변등), 課藝(과예)
8		兵(병)	簽丁(첨정), 練卒(연졸), 修兵(수병), 勸武(권무), 應變(응변), 禦寇(제구)
9		刑(형)	聽訟(청송), 斷獄(단옥), 愼刑(신형), 恤囚(휼수), 禁暴(금포), 除害(제해)
10		工(공)	山林(산림), 川澤(천택), 繕廨(선해), 修城(수성), 道路(도로), 匠作(공작)
11		賑荒(진황)	備資(비자), 勸分(권분), 規模(규모), 設施(설시), 補力(보력), 竣事(준사)
12		解官(해관)	遞代(체대), 歸裝(귀장), 願留(원류), 乞宥(걸유), 隱卒(은졸), 遺愛(유애)

가장 먼저 부임을 넣었다. 그 지역에 목민관으로 부임했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3기와 6전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의 몸가짐이나 자세, 고금의 사례 등을 서술하였다. 또, 백성들을 규휼할 때에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으로 해임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즉, 다산은 저술할 때에 철저하게 분류기준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각 항목들이 중복되는 폐단을 막았다.

그러나 저술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편지에 보이지 않는다. 초서는 무척 꼼꼼하고 자상하게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저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저술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였을까? 다음

글을 읽어보자.

> 겨울에 『주역심전』이 이루어졌다. 공이 『주역심전』의 무진본에 題하기를 "내가 갑자년 동짓날 강진 유배지에서 『주역』을 읽기 시작했다. 이 해 여름해 비로소 箚錄(차록)해 놓은 공부가 있어 겨울이 되어 완성하였는데, 모두 8권이었다. 이것이 갑자본이다. 이 갑자본은 4義가 비록 갖추어지긴 하였지만 거칠고 소략하고 완전하지 못하여 마침내 없애 버렸다. 그 다음해 개정하여 찬수하였는데, 또한 8권이었다. 이것이 을축본이다. 을축년 겨울에 큰 아들 학연이 와서 함께 보은산방에 기거하면서 전본에서 兩互·交易의 상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두 개정하여 봄이 되어 끝마쳤다. 모두 16권이었는데, 이것이 병인본이다. 병인본이 播性留動의 뜻이 있어서 빠지고 잘못된 점이 많았으므로 또 고치게 하였다. 원고가 끝마쳐지지 않았는데, 아들이 북쪽으로 돌아갔으므로 이청으로 하여금 완성하게 하였다. 모두 24권이었는데, 이것이 정묘본이다. 정묘본은 말의 이치가 정밀하지 못하고 象의 뜻이 잘못된 점이 많아 무진년(1808) 가을 내가 다산에 있을 적에 둘째 아들 학유로 하여금 탈고하게 하였는데, 또한 24권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戊辰本이다.[98]

다산이 1808년에 완성한 『주역심전』은 1804년 갑자본 8권 → 1805년 을축본 8권 → 1806년 병인본 16권 → 1807년 정묘본 24권을 거쳐 1808년에야 비로소 무진본 24권을 완성하였다. 『주역심전』은 무려 5번 수정하고, 5년 동안 진행되었다. 다산은 저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새롭지 않으면 종이를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니 그가 저술을 얼마나 신중하게 했을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무릇 책 한 권을 저술할 때에는 먼저 저술할 책의 자료를 수집하여 둘씩 둘씩 비교하고 서로 참고하고 정리하여 정밀하게 따졌다. … 무릇 六經四書의 學에 있어서, 『주역』은 5번 원고를 바꾸었고 그 나머지 九經도 두세 번씩 원고를 바꾸었다. 공의 탁월한 식견에 부지런하고 민첩함을 겸하여 이 큰일을 완성했던 것이다.[99]

다산은 자신의 저술을 몇 번이고 수정하고 다듬고 교정 하였다. 아마도 다산은 저술이 초서에 비해 신중하면서도 힘든 작업이라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편지로 그 깊은 뜻을 전달하기 어려워 자녀들에게 편지로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

98)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00~301면.

99)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57면.

다산은 편지만으로는 자녀 교육을 충분히 해낼 수 없음을 알았다. 물론 꼼꼼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여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직접 검토하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산은 직접 강진 유배지로 자녀를 불러 들여서 교육하기도 하였다.

> 너의 학문도 점점 때를 넘기고 있는데 너는 집안 사정으로 봐서는 꼭 밖에서 유학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이곳에 와서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마땅할 것이지만 대의를 모르는 집안 아낙네들이 틀림없이 놓아주지 않을 것 같구나. 네 동생의 학문이나 식견이 바야흐로 봄기운이 돌아 모든 초목이 움터오를 듯한 기세로구나 너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네 동생을 보내려다가 차마 보내지 못한다.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을 보내고 경오년(1810) 봄에나 보낼 수 있겠다. 너도 그날까지 허송세월 해서는 안 된다.[100]

1808년 겨울에 다산이 장남 학연에게 보낸 편지다. 이때는 차남 학유가 초당에서 다산과 같이 살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다산에게서 직접 배운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학유의 학문이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다산은 집안 사정으로 초당으로 와서 배우지 못하는 장남이 걱정되었다. 또 학연의 나이가 26세이고 보니 서둘러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면 비루해지고 기상이 막힐까 염려되었다.

> 백번 생각해보아도 집에서 공부할 생각이라면 머물러 기다려 네 아우와 서로 만나보고 교대하거라. 만약 그 사정이 전혀 희망이 없으면 명년 봄이 화창해진 뒤 온갖 일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려와서 공부하자. 이는 단연코 결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네 마음씨가 날로 무너지고 행동거지가 날이 갈수록 비루해지니 이곳에 와서 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겠기 때문이고, 둘째로 안목이 좁고 다급해지고 뜻과 기상이 막히고 잃어가니 이곳에 와서 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겠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경전공부의 수준이 거칠고 재주와 식견이 空疎해졌기에 이곳에 와서 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그만 사정이야 돌아보거나 아까워해서는 안 되리라.[101]

---

100) 「寄淵兒」,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7면.
汝之學問 漸漸過時 家間情地 宜於出游 來此同過 萬萬得當 而婦女不知大義 必有難捨之情 汝弟文學識見 方有春噓物茁之勢 恤其兄而遣其弟 亦所不忍 今意庚午之春 始可還送 其前汝將虛送日月耶.

101) 「寄淵兒」,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7면.
百回商量 有在家學習之望 則留待汝弟 面看交代 如其事情萬無一望 明年春和之後 拋却百千萬事 下來同業 斷不可已 第一心術日壞 行己日卑 來此聽受可也 第二眼力短促 志氣沮喪 來此聽受可也 第三經學鹵莽 才識空疎 來此聽受可也 小小事情 有不足顧恤耳.

다산은 장남 학연이 강진에 와서 직접 자신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집에 가장이 없으니 마음은 날로 무너지고 행동은 날로 비루해 진다. 두 번째로, 스승이 없으니 안목이 좁고 기상이 막힌다. 세 번째로, 실력 있는 스승이 없으니 경전공부의 수준이 거칠어지고 재주와 식견이 떨어진다. 다산은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다산이 강진에서 아들 학연을 직접 교육하고자 했던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먼저 바로 자신의 교육 방법을 학연에게 직접 적용시키기 위해서였다. 앞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산의 교육 방식은 철저하고 순차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편지만으로는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연에게 강진으로 직접 와서 배우도록 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기 때문이다. 다산에게 보낸 형 정약전의 편지를 보면 다산이 식구들을 전라도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형 정약전이 다산에게 보낸 편지이다.

> 지난번 자네 편지에 전라도로 이사하겠다고 하였기에 일시적인 분통을 못 참아 하는 말이겠지 하고 나 역시 분통어린 답서를 보냈네. 그런데 이제 큰 형님과 집사람의 서신을 보고 자네가 유배생활의 괴로움을 못 이겨 온갖 말로 설득시켜 계획이 이미 성숙되어 가는 것으로 짐작되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조목조목 말하겠네.[102]

다산은 형에게 가족들을 전라도로 이주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보냈다. 형 정약전은 다산의 이와 같은 생각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그것을 저지하였다. 즉, 이 일은 항상 의연한 자세로 학문의 뜻만을 좇던 다산에게도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 성정, 특히 혈육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산은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많은 훈계도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과제로 내주

---

102) 「寄茶山」, 『與猶堂集』(규장각 필사본).
前書有南渡之說 吾視之一時憤發之言 故吾亦以憤辭答之 今見佰氏及家人書 因君此計天言萬語滿紙悲 若始知前言非偶而其計已熟不可者 有數端玆條論之.

고 검토하여 비록 폐족은 되었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제2절 형에게 학문 토론을 요청함

『玆山魚譜』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巽菴 丁若銓(1758~1816)은 다산의 둘째 형이다. 다산의 형제는 총 네 명으로 아버지 정재원과 의녕남씨 사이에서 맏형 약현(1751~1821)이 있었고, 해남윤씨 사이에서 둘째형 약전, 셋째형인 약종(1760~1801), 그리고 다산이 있었다. 신유사옥으로 정약종은 죽고 둘째형 정약전과 다산은 각각 전라도 신지도와 장기현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황사영백서 사건으로 다산은 강진에 그리고 정약전은 나주 흑산도에 이배되었다.

흑산도는 육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당시에는 뱃길로 사나흘이 걸리는 매우 멀고도 외진 곳이었다. 특히 육지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외떨어진 섬에서 생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산은 형이 무척 그립기도 했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컸다.

> 보내주신 편지에서 "짐승의 고기는 전혀 먹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도라고 하겠습니까. 섬 안에 산개가 천 마리 백 마리뿐이 아닐 텐데,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5일에 한 마리씩 삶는 것을 결코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 5일마다 한 마리를 삶으면 하루 이틀 쯤이야 생선요리를 먹는다 해도 어찌 기운을 잃는 데까지야 이르겠습니까. 1년 366일에 52마리의 개를 삶으면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흑산도를 선생의 湯沐邑으로 만들어 주어 고기를 먹고 부귀를 누리게 하였는데 오히려 고달픔과 괴로움을 스스로 택하다니 역시 사정에 어두운 것이 아니겠습니까.[103]

이 편지만 보더라도 정약전의 생활이 매우 궁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편지는 1811년 겨울에 보낸 편지인데, 그렇다면 약 10년간은 육고기 먹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는 말이다. 흑산도는 정약전이 거주하던 서울과는 생활환경이 매우 달랐다. 게다가 관리로 부임한 것이 아니고 정치범으로 유배 온 상태이기 때문에

---

103) 「上仲氏(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4면.
來敎云禽獸之肉 都不入口 此豈可長之道耶 本島山犬不啻千百 使我當之 五日一烹 必無缺矣 … 每五日一烹 則一兩日雖食鮭菜 豈至損氣 朞三百六旬有六日 烹五十二犬 足可以繼肉 天以黑山爲先生湯沐邑 使之食肉富貴 顧乃自受困苦 不亦迂乎.

흑산도에서 의식주 해결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덫을 놓아 개를 잡는 방법과 개고기를 삶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물고기나 조개류, 해조류 등을 정리해 놓은 『자산어보』도 먹는 것의 괴로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은 결코 낭설이 아니다.

정약전이 경제적 사정과 생활상의 곤란, 참고문헌의 부족으로 많은 책을 저술하지 못한데 반해 다산은 오로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냐하면 다산의 학문적 욕구가 무척 강했기 때문이다. 다산의 수많은 저술은 바로 학문적 욕구에서 시작하였다.

> 내 나이 스무 살 때는 우주 사이의 모든 일을 다 깨닫고 완전히 그 이치를 정리해내려 했는데, 서른 살이나 마흔 살 때까지도 그러한 의지가 쇠약해지지 않았다. 모진 세월을 당한 뒤에는 백성과 나라의 일에 관계되는 모든 일, 즉 田制, 官制, 軍制, 稅制 등으로만 생각을 좁히고 경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혼잡된 것들을 모두 파헤쳐 가장 정통의 옛 유교원리로 돌이키려는 생각이 있었다. 이제는 몸에 중풍이 생겨 그런 마음이 점점 쇠잔해가지만 그러나 정신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한가로운 생각이 떠올라 문득 옛날의 욕심들이 다시 일어나곤 한다.104)

다산은 스무 살 때부터 생각해 온 것을 유배 온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결실로 백성과 나라의 일에 관계된 것이나, 경전에 관한 저작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다산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저작활동을 계속 하였는데 그러한 속사정을 형에게 보낸 편지에 간간이 밝히자 정약전은 지나치게 방대한 학문적 욕구에 준엄하게 꾸짖는다.

> 『尙書知遠錄』 가운데 서로 의견이 같은 대문은 모두 거론할 것 없고 그 알지 못한 대문 두어 조문을 뽑아서 대략 변론하노니 순임금이 순임금이 되는 이유는 자기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따르는데 있으니 이른바 勇이다. 만약, 남의 말에 동감이 있거든 고치는 것이 어떠한가. 중풍의 증세가 있으되 수양하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네가 이 한몸으로써 하늘과 땅 사이에 일을 다 연구하고자 하니 또한 의혹되지 아니한가. 오직 두어 가지 글에서 그 하늘의 이치를 깨달

104) 「贐學游家誡」, 『與猶堂全書』 제1집, 권18, 13면.
余年二十時 欲盡取宇宙間事 一齊打發 一齊整頓 至三十四十 此意不衰 風霜以來 凡繫民國之事 若田制官制軍制財賦之等 遂得省念 唯經傳箋注之間 猶有撥難返正之願 今風痺頹廢 此心漸落 然神氣小勝 諸閑商量 又勃然復興.

은 것이 만족하다. 뒤에 반드시 연구할 사람이 있으리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후인의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여 성인의 학문에 오로지 뜻을 쏟으면 어찌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이것저것 언급할 것이 경문 한편만 같지 못하니 어찌 생각을 바꾸어 보지 아니하리오.105)

다산은 하늘과 땅 사이의 일을 다 연구하려 하였다. 그래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어 중풍은 더 악화되었다. 정약전은 다산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였으나 하나의 이치에 정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치를 모두 연구하려는 다산이 탐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약전은 순임금의 고사를 들어서 순임금이 어진 정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남의 좋은 점을 취했기 때문이니 의혹된 부분은 후인의 연구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나의 이치에 힘을 쏟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가 저술활동에 매달린 이유 중에 말 못할 사연이 있었다. 오직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는데 바로 유배지에서의 괴로움 때문이었다.

점차로 하던 일을 거둬들여 정리하고 이제는 마음공부에 힘쓰고 싶은데 더구나 풍병은 이미 뿌리가 깊어졌고 입가에는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증세를 느끼고 머리 위에는 언제나 斗尾峽106) 얼음위에서 잉어 낚는 늙은이의 솜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또 혀가 굳어져 말이 어긋나 스스로 살날이 길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한결같이 바깥일에만 마음이 치달리니, 이는 주자께서도 만년에 뉘우쳤던 바였습니다.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고 보면 세간의 잡념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어지럽게 일어나 무엇 하나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니, 마음공부로는 저술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이 때문에 문득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107)

다산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초당에서 넉넉하게 생활 하였지만 계속된 저술활동과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 그래서 정약전은 마

---

105) 「寄茶山」, 『與猶堂集』(규장각 필사본).
知遠錄中恰恰相合處 都不擧論 拈其未遠處數條略略 詰辨舜之所以爲舜 在於舍己從人 所謂勇也 如有契合釐改如何 風病有漸而不思修養 子以眇然一身欲盡窮天地間事 不亦惑歟 惟留數種書其於破天荒足矣 後必有踵起者 一切抛置留俟後人 專意於聖人之學 豈非智乎 子言萬語 都不如一章經文 何不領悟.

106) 한강 상류의 강 이름.

107) 「上仲氏(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3~24면.
漸欲收之斂之 用力於治心之工 況風病根已深 口角常流淸涎 左脚常覺不仁 頭上常戴斗尾氷上釣鯉翁之絮帽 近又舌疆語錯 自知年壽不長 一向外馳 此朱子晩年所悔也 豈不惕乎 但靜坐澄心 則世間雜念 千頭萬緖 紛紛擾擾 不可把捉 還覺治心之工 莫如著述 以此不得便止耳.

음공부를 위해 도인법(도가의 양생술)을 권유했다. 다산은 도인법을 알고 있었으나 시행할 수 없었다. 그것은 六經공부에 전념하느라 시간이 없기도 하였지만 세간의 잡념이 너무 많이 일어나 집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산은 잡념을 잊기 위해 저술에 손을 떼지 않았다. 저술하는데 힘을 쏟지 않고 심신을 수양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면 옛날 억울하게 유배 온 기억과 해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바깥으로 치달리기 때문이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같은 처지에 있는 형 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산은 유배지에서의 괴로운 속사정을 형에게 털어 놓았다.

초당의 안정된 생활과 여러 제자들의 도움으로 다산은 유배 후반기로 갈수로 많은 저술을 하였다. 학문적 욕구와 유배지에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 시작했던 저술작업이 유배 후반기에는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다. 그래서 다산은 이런 고민까지도 하게 된다.

> 이제 풀려나 집에 돌아간다 해도 바람벽만 남은 집에 곡식이라고는 설 전에 다 떨어졌고 늙은 아내의 얼고 굶주린 모습이나 아이들의 처량한 모습일 뿐일 테지요. 두 분 형수께서는 "왔으면 왔으면 했는데 와도 그 모양이구나"라고 할 겁니다. 태산이 등을 누르고 큰 파도가 앞을 가리고 있으니, 만약 풀려난다면 『주역』에 관한 공부가 까마득해질 것이고 음악공부도 봄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108)

1812년 즈음에 보낸 편지인데 다산은 누구에게도 하지 못할 고민을 형에게 털어 놓았다. 해배되어 집에 돌아간다 해도 이미 50이 넘었으니 정계에 진출하기가 힘들고 혹 진출한다 해도 그의 재주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 낮은 벼슬 밖에 못할 것이다. 또한 그의 政敵이 많이 제거되었다 해도 金祖淳으로 대표되는 안동김씨가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태산이 등을 누르고 큰 파도가 앞을 가린 듯 험난한 여정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다산은 한참 『주역』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고 『악서고존』의 초고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런 공부의 즐거움이 없어

108) 「答仲氏(10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9면.
今雖歸去 家四壁立 糧歲前絶 老妻凍餒 兒色凄涼 二嫂曰其來其來 來亦然矣 泰山壓其背 滄波橫其前 卦爻屬於先天 律呂付之春夢 有何一分樂事.

질 것을 생각하니 다산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초당에서의 여건도 공부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 하느님께서 이곳 다산을 내가 죽어서 묻힐 땅으로 작정해 주셨으며, 보암산 몇뙈기 밭을 나의 식읍지로 주셨고, 한 해가 다 가도록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낙네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니 복이 이처럼 후하고 지위가 이렇게 높은데도 이러한 세 가지의 깨끗한 신선 세계를 버리고 네 겹으로 둘러싸인 아비규환의 세계에다 몸을 던지려 하니 천하에 이처럼 어리석은 사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109)

『주역』 공부하는 데는 가장 먼저 조용한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다산은 바로 초당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토지도 소유하여 생활도 안정되었다. 그래서 신선세계인 초당에 남는 것이 아비규환의 세계인 정계에 돌아가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계획이지 본심은 아니라고 하였다.

> 이 이야기는 억지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의 계획이 정말 이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없은 적이 없었으니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코 간음이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의 아내나 첩을 도적질하려 하고, 분명코 생계가 파탄남을 알면서도 더러는 마작을 하는 수가 있듯이, 내게 있어서의 돌아가고픈 마음도 이런 유의 심정이지 어찌 본심이겠습니까.110)

다산은 집에 가족이 있으니 돌아가긴 해야 하나 돌아가 보았자 저술하기도 힘들고 신유사옥의 여파가 남아 있어 두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도 있고 땅도 있으며, 저술하기에도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초당에 남아 있을 수도 없었다. 다산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된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속의 계획일 뿐

---

109) 「答仲氏(10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9면.
天以茶山爲我平泉莊 以寶巖數畝田 爲我湯沐邑 終年卒歲 無兒啼婦歎聲 福如是厚 位如是尊 乃欲去此三淸仙界 投身四重阿鼻 天下有如是愚夫乎.

110) 「答仲氏(10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9면.
此非強作之言 心計眞的如此 然而一邊未賞無歸心 此人性本來劣弱而然耳 明知姦淫之非 而或竊人妻妾 明知產業之破 而或馬弔江牌 其有歸心 卽此類耳 豈本心哉.

이지 절대 본심이 아니라고 하였다. 정약전도 아마 다산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약전도 다산과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흑산도에서 아이까지 낳아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배지에서 다산의 학문적 논의의 상대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해남 윤씨들과 아암 혜장, 그리고 그를 찾아온 몇몇 지인들과 제자들, 또 형 정약전이 있었다. 해남 윤씨들과는 특별한 학문적 논의에 대한 글이 남아 있지 않고, 아암 혜장과도 『주역』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다산의 학문이 훨씬 뛰어났다. 그리고 1814년 문산 이재의와는 『맹자』의 사단론과 상례, 제례에 관한 이야기로 『여유당전서』에 10통의 편지가 실려 있지만 극히 한정적인 내용의 토론이 오갔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였으니, 다산의 학문적 진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형 정약전은 다산의 학문에 대해 많은 논평을 가했다. 그것은 다산과 정약전이 형제라는 것과 처지가 비슷한 점이 학문적 토론을 하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학문하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이다. 정약전의 편지를 보자.

> 지난 겨울에 답서는 받아보지 못한 바 새로 들은 것이 매우 많아도 전에 홀로 얻은 바와 부합되는 것이 태반이다. 우리 두 사람은 같은 기질로 같은 학문을 닦았기에 보는 눈이 각각 있으니 또 어찌 그 같다는 것이 매우 기특하다. 가장 기특하고 가장 신묘하여 失笑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공자제자 안연의 問仁章에서 내가 그날 아침에 우연히 그 뜻을 터득하여 홀로 기특함을 부르짖었는데 그날이 저물기 전에 그대의 편지가 이르러 새로운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한 지면에 인쇄한 것과 같아서 곧바로 그대의 손을 잡고 그대의 등을 두드려 "내 아우야 내 아우야"하고 부르고자 하였으나 가히 그러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기이한 운명인가.[111]

형제이기에 함께 배우고 같이 죽란시사도 활동하였다. 하지만 서로의 안목이 있으니 생각하는 것과 학문적 방향은 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정약전이 『논어』의 問仁章을 보고 새롭게 터득한 것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다산이 보내온 편지의 내용이 자신이 터득한 것과 똑 같았다. 정약전은 흥분을 감출 수 없어 '아우야 내 아

---

111) 「寄茶山」, 『與猶堂集』(규장각 필사본).
前冬復書 前所未得而新聞者甚多 前所獨得而符合者太半也 吾二人同氣同學則有之矣 眼孔則各有也 又何豈同也奇甚最有 最奇最妙 不覺失笑之事 顔淵問仁章 吾於其日之朝 偶得其義 獨自叫奇其日 未暮而君書至 發出新義者 如印一版 直欲執君之手 拊君之背 呼吾弟吾弟而不可得也 何其奇也.

우야 어찌 이리도 그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까'하고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고 싶었다고 쓰고 있다. 하나의 예에 불과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다산이 형과 학문적 논의를 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

1801년 황사영백서 사건 이후 다산 형제는 11월 22일 나주 율정점에서 이별을 고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편지로 자신의 학문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육지에서 흑산도까지는 뱃길로 멀기도 하지만 위험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편지를 전하는 방법은 官便, 專人, 人便 등이 있었다. 官便은 관의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고, 專人은 배달인을 통해 바로 편지를 전하는 것이며, 人便은 수신자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 편지를 부치는 것이다. 또 轉便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여러 인편을 거쳐 전달하는 것이다.[112] 다산 형제의 서신왕래는 관편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전인도 다산 형제의 경제적 형편상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인편이나 전편으로 편지를 부쳤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정기적인 여객선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흑산도를 왕래하는 고깃배에 의존하여 형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편지는 빠르면 며칠 만에 도착할 수도 있으나 늦으면 몇 달만에 도착할 수도 있고 배가 풍랑을 만나면 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했을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에 「上仲氏」(제6서)에는 매우 많은 내용이 한 편지에 들어 있는데 오랫동안 배가 뜨지 않아 여러 편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서신왕래가 힘든 상황에서도 다산은 많은 편지로 학문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유당전서』에 다산의 편지가 17통, 『여유당집』(규장각 소장 필사본)에 정약전의 편지가 14통 실려 있다. 이 편지에는 대부분 학문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가정사나 주변의 일상적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학문적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자.

예서에 대한 연구는 지난 가을 이래 많은 질병에 시달리느라 초고를 끝마친 것이 극히 적습니다. 草本 5편[113]을 부칩니다만 모두가 절단되고 뒤섞여 文理가 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중

112) 이인숙, 「조선시대 편지의 문화사적 의의」, 『민족문화논총』 제30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394면.

에는 또 처음의 견해를 바꾸어 정본으로 삼고서도 초본에는 고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선 심심풀이로 보아 주십시오. 중간의 초본은 이미 집으로 보내어 아이에게 탈고하게 하였으니 돌아와야만 질문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초본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잘못된 해석이 있으면 조목조목 논박해서 가르쳐주시고 의당 절차탁마하여 정밀한 데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더러 갑이다 을이다 서로 우기며 분쟁이 오감으로써 어린시절 집안에서 다투던 버릇을 잇는 것도 절로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114]

다산이 보낸 초본 5편은 1807년에 『상례사전』(50권)으로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최소한 1807년 이전에 쓰여 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산은 예서에 대한 초본을 완성하여 형에게 보냈다. 이 초본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형이 지적한 내용 중에 다산 자신이 수긍가지 않는 점이 있다면 옛날 어렸을 때 다투던 것처럼 토론을 벌여 보자는 것이다. 정약전은 이렇게 답장을 보낸다.

예서의 공부가 심히 성하여 천고의 오류를 대빗으로 먼지를 씻어버림과 같으니 상쾌하도다. 보내온 책은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갖추지 못하고 문장이 전도되어 紅亭 翠閣 隱映 花問과 같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간지럽게 한다. 다만 가히 통할 곳에 나아가서는 이미 눈을 깨닫게 함이 새벽 하늘과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전편을 얻어 보겠는가. 간혹 의심난 점이 있으되 가히 참고할 수 없어 감히 가벼이 말할 수 없고 다만 그 著明한 두어 조목에 나아가 부족한 생각으로 말을 하니 용서하게.[115]

정약전은 다산이 보내온 책을 받고 아직 초고라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으나 그 책이 이전 학설의 오류를 대빗으로 쓸 듯 상쾌하게 씻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논박하여 정밀한 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산이 부탁하자 칭찬만 하고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고 밝게 드러난 것 몇 가지 지적한다고

113) 『상례사전』을 저술할 때의 초본 5편.

114) 「答仲氏(5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16면.
禮書之工 昨秋以來 苦多疾病 脫草者極少 草本五編付去 皆割截顚倒 不成文理 其中又或有變其初見 以爲正本 而草本不改者 幸先破寂焉 中草已送家中 令兒脫稿 待其回來 當有奉質之日也 此雖草本 其中如有錯解處 幸條條駁誨 當有以切磋就精 其或互相甲乙 往復紛爭 以續孩提時鬪牆之習 亦自一樂也.

115) 「寄茶山」, 『與猶堂集』(규장각 필사본).
禮書之工甚盛 千古紕繆如竹篦刮垢快哉 來冊果然首尾不該 文理顚倒 如紅亭翠閣隱映花間 令人心癢 只就其可通處 已覺顔如曙天 何由得見全本也 或有可疑處而無可考據 不敢輕說 只就其著明者數條 臆料爲說未知有槩否也.

하였다. 다산 형제의 학문적 논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산이 초고를 완성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책의 문제점을 들어 편지를 보내면 정약전은 다산의 의견에 대해 칭찬도 하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또 교정도 하였다. 그러면 다산은 형이 지적해 준 것에 대해 수긍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도 하였다.

> 보내주신 편지에 1矩[116]하고 절반이라는 설은 참으로 확실하고 精微하여 아주 경전의 본뜻에 적중하니 기뻐서 뛰고 싶은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原書가 나오면 磬의 조목은 곧장 고치겠습니다. 매우 다행입니다.
> 差率法(차율법)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바로 曆數家의 차율이어서 법이 아무리 정미하다고 하더라도 樂家의 차율법과는 서로 전혀 합치되지 않는데, 더구나 셋으로 차등을 두는 伶州鳩(영주구)[117]의 법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지금 이미 영주구의 말은 따르지 않으면서 셋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또 어떤 근거에서입니까.[118]

『악서고존』의 초고에 관해 다산이 보내 준 것을 정약전이 받아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하였다. 1구하고 절반이라는 설은 다산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정약전의 말을 듣고 알게 되어 곧장 고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차율법에 대한 형의 의견은 역수가의 차율법이지 악가의 차율법이 아닌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지 되묻고 있다. 그러면서 수학이란 악가와 相剋인데 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약전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편지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나 다산은 나중에 형의 의견에 찬성하여 원고를 바꾸게 된다.

> 『악서고존』이 완성되자 공(정약전)은 '2천년 동안이나 계속된 긴 밤의 꿈 속에서 헤매던 樂이 지금에서야 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 내가 공의 말을 조용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바꾸지 못할 확론이었다. 따라서 이미 썼던 원고를 모두 버리고 공의 말대로 다시 원고를 모두 버

---

116) 尺數, 길이의 단위.

117) 樂官의 명칭.

118) 「答仲氏(3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15면.
來敎一矩有半之說 眞確精微 深中經旨 不勝欣躍 原書出來 則磬條卽當釐改 幸甚幸甚 至於差率之法 此是曆數家之差法 雖極精微 於樂家差率之法 全不相合 況差之以三者 伶州鳩之法也 今旣不遵伶州鳩之言 則差之以三 又何據也.

리고 공의 말대로 다시 원고를 작성하였다.119)

다산은 형의 편지를 받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고하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형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고 다시 새로 원고를 작성하였다. 즉, 다산은 당시에는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한 것도 현재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면 그 이전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작성하였다.

다산은 이렇게 자신이 쓴 원고를 형 정약전에게 보내어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정약전은 의식주 해결이 힘들었고 또한 참고서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배지에 있는 16년 동안 몇 편의 저서밖에 이루지 못했다. 정약전이 쓴 원고 중에 『자산어보』의 초고를 다산에게 보내어 의견을 묻는 편지가 보이긴 하나 그 이외에 저술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다산은 학문에 관심이 많아 형과의 학문적 논의를 통해서 수많은 저술을 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산은 풍병에 걸리고 왼쪽 다리에 마비가 오고 항상 솜털모자를 쓰고 있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저술활동을 늦추지 않았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은 자신의 저술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악서고존』 열두 권을 그 사이에 읽어 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율려 차례 중 제7권에 논술한 협종은 반드시 요순시대의 근본된 방법으로 만에 하나의 잘못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5천년전 율려(음악)에 관한 학문의 그 근본정신을 오늘에 되살려내었으니 이 일은 제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년 이래로 밤낮으로 사색하고 算가지를 붙잡고 늘어놓고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이다보니 어느날 아침에 문득 마음에 깨달음의 빛이 났습니다. 三紀와 六平, 差三, 具五의 방법들이 섬광처럼 내 눈앞에 열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붓을 들고 쓴 게 바로 제 7권입니다. 이게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라 하겠습니까.120)

---

119) 「先仲氏墓誌銘」, 『與猶堂全書』 제1집, 권15, 41면.
樂書成 公見之曰二千年長夜一夢 今大樂還魂 … 鏞靜思公言 眞確不易 乃毁前藁 悉從公所言.

120) 「答仲氏(10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8면.
樂書十二卷 其間想已覽訖 律呂之數 第七卷所論 必是唐虞本法 萬無一慮 五千年前律呂之學 還魂於今日 此非鏞所能心得 數年以來 蚤夜思索 握算列籌 積費心血 一朝忽覺靈臺有光 三紀六平差三具五之法 晃晃然列

다산은 『악서고존』중에 제7권의 협종은 어떠한 경전에 비추어 보아도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이것은 자신이 몇 년간 밤낮으로 사색하여 하루아침에 문득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저술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악서고존』 序에서 죽은 형이 깨우쳐 준 것이 많다고 하였다. 『악서고존』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과 함께 그 공적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방강역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부심을 볼 수 있다.

> 『아방강역고』 10권이야말로 10년 동안 모아 비축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쏟아놓은 것입니다. … 이 10권의 책만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인데 그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전혀 찾을 수 없으니 끝내는 이대로 티끌로 돌아가고 말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럴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다시 고달프게 애를 쓰며 그만두지 못하고 있으니 또한 미혹된 것이 아니겠습니까.[121]

『아방강역고』 10권은 1811년 다산이 완성한 책으로 우리 국토에 관한 저술이다. 다산은 중국의 역사보다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우리나라의 역사책이나 저술들을 많이 읽으라고 권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국의 역사는 등한시하고 중국의 역사만을 배우려는 풍토로 인해 이 책의 가치가 드러나지 못하고 사라질까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럴 줄 알면서도 다산은 이 책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10년 동안 정성들여 다듬었다. 이 책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지만, 책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위대한 학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다산은 학문에 대한 욕심이나 논의, 자부심 등을 모두 형 정약전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1816년 정약전은 해배되지 못한 채 흑산도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 오호라. 어질면서도 곤궁함이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원통하여 무너지는 가슴을 호소하니 목석

於眼前 於是援筆書之 此乃第七卷也 此豈人力之所能得哉.

121) 「上仲氏(6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20, 23면.
我邦疆域考十卷 乃十年蓄聚 而一朝發泄者也 … 惟此十卷之書 亦吾東必不可少之物 而能別其是非者 亦萬不可得 畢竟歸於塵土耳 明知如此 而猶復矻矻不已 不亦惑歟.

도 눈물을 흘리는데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외로운 천지 사이에 우리 巽菴(정약전)선생만이 나의 지기였는데, 이제는 그분마저 잃고 말았다. 앞으로 비록 깨달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입을 열어보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죽느니만 못한 것이다.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녀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 종족들이 모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처지에 나를 알아주던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슬프지 않으랴. 經集 240책을 새로 장정하여 책상 위에 두었는데 나는 이 저술을 불살라야 한단 말인가.[122]

다산의 저술은 형과의 토론으로 재탄생된 것이 많았다. 다산은 학문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형의 의견은 가능한 한 수용하였고, 특히 『악서고존』의 경우, 형의 공을 인정하여 서문에도 기록하였다. 다산에게 있어 형은 혈연관계를 떠나서 학문적 벗이었다. 더욱이 처지가 같아 다산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는 지기였다. 그런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산은 매우 애통해 하였다. 그래서 알아줄만한 사람이 없는 자신의 저술을 모두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산은 학문적 성향과 처지가 비슷한 형 정약전에게 자신의 저술을 이룩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다산의 저술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도 있었지만 형이 그의 저술에 대해 교정하거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122) 「寄二兒」,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8면.
嗚呼 賢而窮有如是乎 冤號崩隕 木石爲之出涕 尙復何言 孑孑天地間 只有我巽菴先生 爲我知己 今焉失之 自今雖有所得 將何處開口 人與其無知己 不如死之久矣 妻不知己 子不知己 昆弟宗族 皆不知己 知己而死 不亦悲乎 經集二百四十冊 新裝置案上 吾將焚之乎.

제3절 김이재에게 憂國衷情을 표명함

다산이 유배지에서 가족 이외에 보낸 편지는 김이재에게 1808년부터 1809년까지 4통, 문산 이재의에게 1814년부터 1817년까지 10통, 다신계 제자인 정수칠에게 1통, 벗인 윤영휘에게 1811년에 1통이 전부이다.[123] 다산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내왕도 빈번했던 인물이다. 『여유당전서』에 실려 있는 수백 통의 편지가 이를 증명해 준다. 그렇다면 18년이라는 기간 왜 이렇게 편지가 적은 것일까?

다산은 1796년 여름부터 1797년 윤6월 2일 곡산 堵護府使로 임명되기 전까지 1년 3개월 동안 竹蘭詩社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동인은 다산 형제를 포함하여 15명이었는데 이들은 서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던 친밀한 사이였다.

憶在明禮坊	옛날 명례방에 있을 적에는
親交日相對	다정한 벗 날마다 서로 만나고
每遇晴好天	언제나 활짝 갠 좋은 날이면
折簡走傔价	편지 쓰고 하인을 시켜
溪南速韓李	시내 남쪽의 한치응, 이주신을 빨리 오라하고
溪西要尹蔡	시내 서쪽의 윤무구, 채이숙도 불러 냈지
到齊發大議	함께 와선 대토론이 터져나와
紛爭若懷懟	감정 품고 싸우듯이 떠들었는데
誰云弼雲便	누가 말했던가 필운대가 편하다하고
多稱洗劍最	세검정이 최고라고 이른 이 많았다고
頻逢闕鞍馬	안장도 말도 없는 때가 잦았으나
四鄰煩借貸	사방 이웃에게 늘 빌려 썼고
妻洪頗曉事	아내 홍씨는 사리에 꽤 밝아
辦具常不懈	모든 준비를 내색없이 잘 해주었지[124]

123) 『여유당전서』에 실린 것을 기준으로 한다.

124) 「九月一日 天氣甚佳 將遊金谷 或登北山 旣而無與共者 悵然懷舊 遂止不往 率爾成篇」,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5면.

죽란시사는 한치응, 이주신, 윤무구, 채이숙, 정약전 등 모두 15명으로 30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黨色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며, 같이 과거에 급제 하는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많아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만나 필운대나 세검정에 가서 시도 짓고 토론도 하였다.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며 친하게 지냈던 죽란시사의 동인들이 신유사옥으로 대부분 몰락하게 되었다. 『여유당전서』에 이들 죽란시사 동인에게 보낸 서신은 매우 많다. 그런데 편지를 썼던 시기가 다산이 유배가기 이전과 해배 후로 한정 된다. 이들이 몰락하거나 유배 갔다고 해서 다산과의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었다. 다음 글을 읽어 보면 다산의 유배 기간 왜 이렇게 편지가 적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그 다음해 봄에 화란이 일어나 나는 장기로 귀양 갔다. 무릇 나와 교분이 있는 사람들로 뜻밖의 횡액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풀을 베듯, 새를 잡듯 잡아 가두고 조사하고 처단하자고 의논하였다. 그래서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법망에 걸려 들까봐 두려워 떨었던 것이다.[125]

신유사옥이 워낙 큰 정치적 사건인데다 노론 벽파 세력이 계속해서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유배 18년 동안 다산은 친구들과 거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그래서 그가 보낸 편지는 양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다산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부분 형이나 자녀에게 하였다. 하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치적 문제나 사회제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다산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으로 金履載(1767~1847)를 택했다.

김이재는 죽란시사의 동인은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다산과 함께 벼슬하던 친구로 세도가인 안동 김씨이다. 하지만 정조와 순조의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시파였기 때문에 벽파의 정치적 탄압으로 1800년에 다산보다 한 발 앞서 강진과 가까운 고이도(현 완도군 고금도)에 유배되었다.[126]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 온 이듬해(1802)에

125) 송재소(1993), 『사암선생연보』 338면.

126) 박석무,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387면.

김이재가 다산과 친분이 있다고 관가에 말해 주자 그때부터 관리들이 다산을 심하게 대하지 않았다. 김이재는 1805년 유배가 풀려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다산과 만나 학문적 토론을 하였겠지만 들렀다는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인연으로 다산은 1808년 11월부터 1809년 가을까지 4통의 편지를 보냈다.

> 홍희운과 이기경 등이 소인이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소인짓을 한 그들의 실태를 한마디로 밝히겠습니다. 과거 경신년(1800)년 國恤(정조의 승하)이 있었을 때 홍희운과 이기경 등이 마음대로 標榜하면서 四兇·八賊의 명목을 꾸며내었습니다. … 그런데도 저들은 스스로 그런 명목을 만들어 흉적으로 자처하면서 當路者(要職에 있는 자)들을 끌어들여 그들을 격노케 하여 그들과 힘을 합하였으니, 이것이 소인의 실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저들은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惡物임이 분명합니다. 소식이 끊긴 이곳(강진)에서도 매양 蜚語에 현혹당하고 있으므로, 마침내 저들의 奸計에 떨어질 터이니 어찌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127]

홍희운과 이기경은 「황사영백서」가 발견되자 "정약용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들이 죽어 장사지낼 곳이 없게 될 것이다"[128] 하고는 이가환 등 다산 일파가 四兇·八賊의 명목을 꾸며냈다는 것을 구실로 다산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다산을 죽이지 못한 것에 한을 품고 유언비어를 퍼트려 다산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다산은 유배형이라는 죄도 억울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하는 세력에 대해 매우 분개 했다. 그래서 다산은 그런 억울함을 다름 아닌 김이재에게 호소하였다.

> 아들 아이가 상께서 陵에 거동하실 때 징을 울려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로 작정하고 그 초고를 나에게 보이려고 인편에 보내왔기에 병든 눈으로 보니 全篇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노형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나에게 지극히 원통한 죄목을 씌우지 않았는데, 내가 어

---

127) 「與金公厚(4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17면.
洪李輩之爲宵小明矣 其宵小情態 請以一言明之曾於庚申大恤之初 渠輩諸人自作標榜 飾出四凶八賊之目 … 而自作而自居之 援引當路之人 以激其怒 與之竝力 此非宵小情態而何 卽此一事 其爲不爲近不可近之惡物明矣 而聲氣隔絶之地 每爲蜚語所惑 遂爲巧計所中 不亦難乎.

128) 「先仲氏墓誌銘」, 『與猶堂全書』 제1집, 권15, 40면.
是年秋逆賊黃嗣永就捕 得黃沁帛書 凶謀滔天 於是洪羲運李基慶等謀曰 春獄殺戮雖多 不殺丁若鏞一人 吾輩終無葬地.

찌 지극히 원통한 심정을 호소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원통함을 호소하고자 한다면 放送을 비는 것뿐인데, 放送을 빌기 위하여 사정을 하소연한 사례가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내 나이가 아직 노망할 나이가 아니니 아무리 아들 아이가 억울함을 하소연 한다 하더라도 그 허물은 아비인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아이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처분을 기다리자고 하였으나, 어찌 될른 지 모르겠습니다.129)

장남인 학연이 나라에 징을 울려 아버지의 원통함을 하소연하려고 인편을 통해 초고를 보내왔다. 다산은 그것이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김이재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배형을 풀려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사례가 과거에 없었음을 들어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다산은 해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해배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다산은 큰아들에게 왜 그릇된 무리들에게 원통함을 호소하여 放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두 가지 기준으로 말해준다.

천하에는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단계의 큰 등급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음이요,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 해를 보는 경우이다. … 비록 내가 절조를 지키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세 번째 등급도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는 것만은 면하려는 것이다. 만일 내가 애걸한다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웃으며 말할 것이다. "저 작자는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다. 지금은 애처로운 소리로 우리를 속이지만 다시 올라오게 되면 해치려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우리를 반드시 멸족시킬 것이니, 아아! 두려운지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풀어주어야 한다고 빈말을 하고 뒷구멍으로 빗장을 걸어 위기에 처하면 돌멩이라도 던질 것이니, 바야흐로 나는 독수리에게 잡힌 새 꼴이 되어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130)

---

129) 「與金公厚(3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15면.
兒子欲於陵辛時 鳴金以原情 草送示之 委伻下來 以此病眼觀之 全篇都不成說 … 然老兄誠思之 世旣不以至冤之目蒙之矣 我將以何至冤之情鳴之乎 今欲鳴冤則唯有乞放二字 乞放而鳴 古有其例乎 顧此年紀未至昏耄 鳴者雖兒 咎將歸翁 以此之故 止兒勿擧 以待處分 未知如何.

130) 「答淵兒」,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6~7면.
天下有兩大衡 一是非之衡 一利害之衡也 於此兩大衡 生出四大級 凡守是而獲利者太上也 其次守是而取害也 其次趨非而獲利也 最下者趨非而取害也 … 雖然我非守節者也 知第三級不可得 故要免第四級而已 我一乞憐則三人相聚而竊笑之曰 夫夫也 眞是奸人 乃欲以哀辭瞞我 及其上來之後 烏喙必沼吳 吁可怕也 於是外以空言示渙釋 及其暗地之揷木 急機之投石也 將如鷲鳥 我非落第四級者乎.

이 편지에서 분류한 기준으로 보면 학연은 그름을 추종하고 이익을 얻을 것을 주장한 격이지만 다산은 그름을 추종하고도 해를 보는 경우만은 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아들이 洪義浩나 姜浚欽, 李基慶에게 편지를 해서 방송을 구하라는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하였으나 나이가 어려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정순왕후는 벽파와 손을 잡고 시파를 축출하였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신유사옥(1801)이었다. 하지만 1805년 정순왕후가 죽자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벽파를 몰아내고 풍양 조씨, 반남 박씨를 대거 기용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권력을 장악한 시파 인사들은 "담당자가 하면 될 일이지 임금이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냉소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순조의 권력을 통제하였다. 1811년 4월경부터 순조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또, 잠을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자주 하였다. 그리고 음식도 평소보다 10분의 1정도밖에 먹지 못하였다. 기록에는 '화병이 쌓인 증세'라 적혀 있는데 사실은 정신분열 증후를 보인 것이다. 순조는 거의 1년간 국사를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빠졌다. 그리고 1812년에는 안동김씨가 조정에 대거 들어오면서 안동김씨의 문벌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31)]

정순왕후가 죽은 1805년부터 김조순계 안동김씨는 세력을 확장해 갔는데 김이재가 1805년에 풀려 난 것도 안동김씨의 세력이 확장해 가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이재는 노론 시파이긴 하나 자신도 노론 벽파의 정치 탄압으로 6년 동안 귀양을 갔기 때문에 노론 벽파에 대한 증오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산은 친구들에게나 형에게 할 수 없었던 정치적인 문제를 김이재에게 털어 놓았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산은 당시 백성들의 궁핍한 사정과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도 낱낱이 편지에 담았다.

---

131)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6, 문벌정치가 나라를 흔들다』, 한길사, 2003, 21면~71면.

6월 초순부터 유민이 사방으로 흩어져 울부짖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길가에 버려진 어린 아이가 수없이 많으니 마음이 아프고 눈이 참담하여 차마 듣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전해지는 소문을 들으니 두려워 넋이 빠질 지경인데도 司牧의 신하들은 귀머거리처럼 전혀 듣지 못하고 바보스러운 웃음만 짓고서 조용히 지내며 더위만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얼굴도 볼 수 없는데, 날로 일으키는 부역은 풍년 때보다 심합니다. 그리고 교활하고 사나운 吏校들을 풀어 백성들이 비축한 곡식을 수색하게 하고 혹은 사찰을 덮치고 상인을 겁탈케 하여, 1백 石의 곡식이 비축되어 있는 자에게는 1천 錢의 뇌물을 바치게 하고 10석의 곡식이 비축되어 있는 자에게는 1백전의 뇌물을 바치게 해서 욕설과 모욕을 자행하여 전혀 법과 기강이 없으니 이는 어찌된 까닭입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내년 봄에 振救가 있을 것으로 바라고 있으나 내가 보기로는 진구는 가망이 없습니다.[132]

1809년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백성의 일용에 필요한 곡식은 물론 채소나 나무들도 자라지 않았다. 또한 샘이 말라 백성들은 갈증에 허덕였고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牛馬도 잡아먹었다. 그렇게 되자 유민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그런데도 고위 관리들은 백성의 구휼에 나서지 않고 더위만을 피하며 부역을 더 심하게 시켰다. 그리고 하급 관리들을 시켜 백성의 곡식을 수탈하고 뇌물을 바치게 하였다. 그래서 흉년인데도 백성들의 賑恤 정책은 바랄 수 없게 되었다. 다산은 이러한 사정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자신의 일과 같이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유배 온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당시의 이러한 상황은 그의 시에서도 보이는데 「田間紀事」의 서문을 보자.

기사년 내가 다산의 초당에 있을 때인데, 그 해에 크게 가물어 그 전해 겨울부터 이듬해 봄을 거쳐 立秋가 되도록까지 들에는 푸른 풀 한 포기 없이 그야말로 적지천리였다. 6월 초가 되자 유랑민들이 길을 메우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아프고 보기에 처참하여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을 정도였다. 죄를 짓고 귀양살이 온 이 몸으로서는 사람 축에 끼지도 못하기에 烏昧[133]에 관하여 아뢸 길이 없고, 銀臺[134]의 그림도 바칠 길이 없어 그때그때 본 것들을 詩歌로 엮어 보았는데,

---

132) 「與金公厚(1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14면.
越 六月之初 流民四散 號哭之聲 殷殷田田 嬰兒之棄於道者 不記其數 傷心慘目 不忍聽不忍視 … 傳聞危懍 魂懼魄遁 而司牧之臣 褻如充耳 深居辟暑 民不見面 徭役日興 甚於豐年 唯縱猾吏悍校 搜括民間藏粟 或掩襲寺刹 或勒奪商販 錄百石者賂錢千 錄十石者賂錢百 詬呶淩辱 靡有法紀 此又何故也 至愚之氓 皆望明春之振濟 然以鏞所見 振濟非可覬也.

133) 오매는 고사리의 이칭으로 烏昧草라고도 한다. 宋 범중엄(范仲淹)이 강회(江淮) 지대를 안무시키고 돌아와서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있는 烏昧草를 올리면서, 그것을 六宮의 戚里들에게 보임으로써 사치를 억제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山堂肆考』

그것은 처량한 쓰르라미나 귀뚜라미가 풀밭에서 슬피 울듯이 그들과 함께 울면서 올바른 이성과 감정으로 천지의 화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오래 써 모은 것이 몇 편 되어 이름하여 「전간기사」라고 하였다.135)

다산은 귀양 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정을 조정에 아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올바른 이성과 감정으로 백성들의 정황을 시에 담았다. 다산의 이러한 내용의 시는 "시대를 아파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136)라고 하였던 다산의 시론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다산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하였다.

관리의 탐오함은 풍년이 든 해보다 열배나 더하고 아사체는 한 가을인데도 도로에 널렸으니, 周召가 방백이 되고, 龔黃이 수령이 된다 해도 모자랄까 걱정되는데 하물며 지금 사람이겠습니까. 백성이 도탄에 빠진지가 4개월이 되었는데도 위무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강진 · 해남 등 몇 고을에서는 한 말의 쌀과 한 병의 장도 구할 수 없으니 다른 고을들도 알 만합니다. 겨울과 봄 사이에 진휼을 감시하는 繡衣御史가 수십 명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장차 무슨 방법으로 갑자기 救護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에는 추수하기 전에 서둘러 내려와서 계획을 세워 조처한 뒤에야 만에 하나라도 구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산은 큰 흉년이 들었던 1809년에 백성들의 아사를 막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서둘러 지방에 내려와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금이라도 구호가 늦는다면 아무리 유능한 周召나 龔黃(공황)이 수령이 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산은 구체적인 지방의 실정과 함께 대비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다산의 친구들은 당시 정권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상황인데다 자신마저도 유배된 몸이니 이러한 상황을 조정에 올릴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택한 사람

---

134) 은대의 그림은 신선이 사는 곳을 은대라고 하는데 『後漢書』 장형전(張衡傳)에, "王母를 은대에서 보았더니 玉芝를 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우네." 라 하였다.

135) 「采蒿 閔荒也 未秋而饑 野無靑草 婦人采蒿爲鬻 以當食焉」, 『與猶堂全書』 제1집, 권5, 36면.
己巳歲 余在茶山草菴 是歲大旱 爰自冬春 至于立秋 赤地千里 野無靑草 六月之初 流民塞路 傷心慘目 如不欲生 顧負罪竄伏 未齒人類 烏昧之奏!階 銀臺之圖莫獻 時記所見 綴爲詩歌 蓋與寒蟬冷蛬 共作草間之哀鳴 要其性情之正 不失天地之和氣 久而成編 名之曰田間紀事.

136) 「寄淵兒」, 『與猶堂全書』 제1집, 권21, 7면.
不傷時憤俗非詩也.

이 바로 김이재였다. 『순조실록』에 보면 당시 김이재는 1806년에 부수찬, 1807년에 동부승지, 1810년에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다산은 김이재가 정권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역량이 조정에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김이재가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점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였을 것이다.

> 이 몸은 풍비가 점점 심해지고 온갖 병이 생겨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장강에 뼈를 던지겠으나 마음속에 서려 있는 우국의 충성을 발산할 길이 없어 점점 응어리가 되어 가므로 술에 취한 김에 붓 가는 대로 이와 같이 심중을 털어놓았으니, 밝게 살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137]

자신은 이제 몸이 쇠약해져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나 백성들의 상황이나 관리들의 부정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술 취한 김에 쓴다고 하였다. 다산은 우국충정의 발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국충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산은 김이재에게 편지를 보내어 조정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

137) 「與金公厚(2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16면.
此身風痺轉甚 百病侵纏 死亡無日 甘捐瘴江之骨 唯是憂國之誠 耿耿在心 無以發洩 轉成痞結 於是乘其小醉 信筆輸寫如此 伏惟照察 恕其狂愚.

제4절 이재의에게 실천적 학문을 주장함

1814년 봄, 강진과 가까운 영암에 머물고 있던 文山 李載毅(1772~1839)가 찾아왔다. 문산이 며칠을 머물고 갔는지 알 수 없으나 다산은 오랜만에 오는 객이 반가웠던 듯 돌아가는 문산에게 아쉬운 감정을 표현한다.

石角幽棲一艸亭	바위 모서리에 그윽이 터잡은 초가 정자 한 채
絶無車馬度郊坰	들녘을 지나오는 수레도 말도 없네
花飄院落鞋泥赤	꽃이 정원에 흩날리니, 산이 붉게 물들고
松蔭圖書字暈靑	소나무 그늘에서 책을 보니 글자가 파랗게 무늬진다
偶遣韻僧飛錫杖	우연히 시승 보내 석장을 날게 하고
忽逢嘉客瀉銀瓶	홀연히 반가운 손님과 은병을 기울인다
芊眼艸色坡頭路	우거진 풀 언덕 위 길에
怊悵鳴騧去不停	머물지 않고 가는 나귀 야속하기만 하다[138]

다산은 유배시기에 거의 내왕이 없었기 때문에 문산의 방문이 반가웠다. 그래서 이 둘은 술을 마시며 학문적 토론을 하였다. 이때 다산은 한창 『맹자요의』를 저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자연히 『맹자』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四端과 性에 관한 것이 주제거리였다. 주자학의 반성에서 시작한 다산의 철학과 주자학을 최고라고 여기는 문산의 철학과의 만남은 다산에게 있어 그의 학문을 주장하고 공고히 하는 좋은 기회였다. 문산이 돌아가자 다산은 토론에 미진한 부분이 남아 먼저 편지를 보낸다.

다산이 문산에게 보낸 편지는 『여유당전서』에 총 10통이 실려 있다. 그 중에서 『맹자』와 관련한 서신으로는 다산이 보낸 편지가 1차, 2차, 3차, 4차, 6차, 7차에 해당하는 6통이 『여유당전서』에 실려 있다. 그리고 문산이 보낸 편지로는 2차, 3차, 4차, 5차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4통, 그리고 5차에 해당하는 다산의 편지 1통이 『문산집』에 실려 있다. 그 이외에 『여유당전서』에 실린 다산이 보낸 4통의 편지는 상례와 제례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문산의 답서는 보이지 않는다.[139]

138) 정약용·이재의 저, 실시학사경학연구회 역편,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 한길사, 1996, 『二山唱和集』.

『맹자』와 관련된 이 둘의 문답은 四端을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가가 핵심 주제였다. 문산의 문제제기를 살펴보자.

> 보내온 편지에 이르기를 "당신이 설명한 사단장을 『맹자』 본문을 가지고 고증하면서 거듭 생각해보았는데, 끝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것은 심성의 본령이자 학문의 두뇌에 해당하는 곳이라, 내 생각을 한 번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140]

문산의 답서 중에서 다산이 인용한 부분이다. 문산은 다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자 다산은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생각건대,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공부의 성과는 성심으로 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으면 성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경전을 연구할 때 오직 옳은 것만 찾고, 옳은 것만 따르며, 옳은 것만 지키려고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지키고자 할 때 언제나 널리 고증하고 지력을 다해 정밀히 검토하는데, 마음가짐은 티없는 거울과 평평한 저울같이 유지하면서 訟事에 단안을 내리듯이 그 본래의 뜻을 파악해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서 견해를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거라고 추측하는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누가 주장했다고 해서 덩달아 낌새만 보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론을 위반하겠는가. … 다만 이 문제는 학문의 두뇌에 관계된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없다.[141]

다산의 주장은 당시의 주자학자들의 주장과는 매우 달랐다. 하지만 다산은 티없는 거울과 평평한 저울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신중히 견해를 세워서 성심으로 널리 고증하고 정밀히 검토한 것이지 추측이나 남의 주장을 함부로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다산은 문산의 편지를 인용하여 반박할 준비를 한다.

---

139) 정약용·이재의 저, 실시학사경학연구회 역편, 『다산과 문산의 인성논쟁』, 한길사, 1996, 해제 참조.

140) 「答李汝弘」,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29면.
來書云四端章 取考孟子本文 反復思量 終有末安處 此是心性之本領 學問之頭腦 不可不一陳愚見.

141) 「答李汝弘(1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29면.
竊以學問思辨之功 非誠不立 一有詐僞 不可曰誠 故鏞於經傳之業 惟是是求 惟是是從 惟是是執 方其擇執之時 未嘗不博考廣證 研精殫智 持其心如鑑空衡平 核其義如斷訟治獄 然後乃敢立說 豈敢以疑似之見 同聲吠影 以違大同之論哉 … 但此事果係學問之頭腦 不敢不一覆.

정말로 仁이 心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면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더라도 측은해 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생기겠는가? 정말로 義가 마음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면 무례하게 주는 음식을 대하더라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생기겠는가?[142]

문산은 사단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지 않고, 인·의·예·지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성리학자인 문산은 인·의·예·지 四德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 純善하기 때문에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인이 측은지심을 일으켜 아이를 구하게 되고 무례하게 음식을 주면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의가 수오지심을 일으켜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산의 생각은 달랐다.

이 마음의 속성은 선을 즐겨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므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해 하고, 음식을 무례하게 주거나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차서 주면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 측은해 하는 마음을 미루어 넓히면 효할 수 있고 충할 수 있어 인이 천하를 덮게 된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 확대하면 천사만종의 재물도 의가 아닌 경우에는 받지 않게 된다. 『맹자』의 의미는 이와 같을 뿐이다. 이제 하나의 인이라는 뿌리에서 발하여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된다고 하면, 이는 근본적으로 네 개의 뿌리에서 다만 네 개의 가지만이 생길 뿐이어서, 다섯이나 여섯, 일곱이나 여덟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어 사태에 '신묘하게 대응(妙應)' 할 수 없는 것이니, 심의 본체가 이와 같다면 반드시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143]

다산은 마음에 인·의·예·지가 뿌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인이 측은지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인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무례하게 음식을 주면 마

142) 「答李汝弘(1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31면.
苟無是仁之根於心 則雖見赤子之入井 惻隱之心 從何而生乎 苟無是義之根於心 則雖當嗟來之食 羞惡之心 從何而生乎.

143) 「答李汝弘(1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31~32면.
此心之性 樂善恥惡 故見赤子入井則惻隱 見嗟來噂蹴則羞惡 推惻隱之心 恢而廣之 則可孝可忠 仁覆天下 推羞惡之心 擴而大之 則千駟萬鍾 義有不受 孟子之意 如斯而已 今若以一箇仁根 發之爲惻隱之心 一箇義根 發之爲羞惡之心 則是本以四根仍生四枝 不可五六 不可七八 木強不才 不能妙應 心體如此 定非活人.

음속에 있는 의가 수오지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켜 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문산은 마음속에 인이라는 뿌리가 측은지심이 되고, 의라는 뿌리가 수오지심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산은 마음은 다만 嗜好만을 가지고 있을 뿐, 측은지심이나 수오지심을 미루어 실천해야만 인이 되고 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산은 문산의 주장대로라면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뿌리에서 사단이라는 네 개의 가지만 생겨서 완고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하였다.

조선후기의 실학은 종래 주자학의 성리학적 관념의 학문적 전환을 꾀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 학문적 전환은 백과사전식의 博學의 방법, 下學而上達式 실제성 중시(원시유학 정신 회복)방법, 훈고식 고증학의 방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방법론적 전환의 각성이 바로 경세치용 · 이용후생 · 실사구시의 모토와 연결되었다. 이 세 가지의 방법론적 전환 중에서도 원시유학을 빙자한 실제성 중시가 가장 강조되었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명분이나 형식을 보다 중요시 생각했던 것에 비해, 실학자들은 실리나 실효, 실질을 더 중시하게 된다. 또, 성리학자들은 윤리 도덕은 절대적이고 불변하여 본성에서 자연히 드러난다고 하였지만 실학자들은 윤리 도덕이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구현된다고 보지 않았다. 우리의 본성에는 인의가 있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실천할 때 인의의 명칭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144)

이제 다시 다산의 편지를 본다면 다산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드러날 것이다.

> 네 가지 마음(측은, 수오, 사양, 시비지심)의 발현은 영명한 본체에서 발하며, 영명한 본체는 그 속성이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할 뿐이다. 이러한 성은 모든 사물에 신묘하게 대응하므로 맹자가 사단을 논하면서도 반드시 성선을 사단의 근본으로 생각하였고, 인·의·예·지를 논하면서는 실천 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는 『맹자』 일곱편의 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다. 인성은 선은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할 뿐이다. 선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측은해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악을 부끄러워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 네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의·예·지의 덕을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本末과 內外에 유의하기 바란다.145)

144) 윤사순고익진 편, 『한국의 사상』, 열음사, 1987, 69~74면 참조.

사람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지 인·의·예·지가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인·의·예·지는 사단의 실천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다산이 문산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저작인 『맹자요의』에 잘 나타나 있다.

>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일을 행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남을 사랑한 이후에 인이라 하니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인의 명칭이 성립할 수 없다. 나를 선하게 한 이후에 의라고 하니 나를 선하게 하기 이전에는 의의 명칭이 성립할 수 없다. 손님과 주인이 절하고 揖한 이후에 예의 명칭이 성립하고 일이 분별되고 분명한 이후에 지의 명칭이 성립한다. 어찌 인·의·예·지 네 가지가 주렁주렁 열려 있지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사람 마음 가운데 엎드려 있겠는가.146)

다산은 인·의·예·지가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안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하였다. 인·의·예·지는 일을 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의·예·지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인·의·예·지는 과일의 씨처럼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만 있을 뿐 직접 실천을 통해야만 그 사람이 인·의·예·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산은 마지막에 四心圖를 덧붙여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였다.

惻隱之心擴之以爲仁	측은지심 확충하면 인이 됨
羞惡之心擴之以爲義	수오지심 확충하면 의가 됨
辭讓之心擴之以爲禮	사양지심 확충하면 예가 됨
是非之心擴之以爲智	시비지심 확충하면 지가 됨147)

---

145) 「答李汝弘(1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35면.
四心之發 發於靈明之本體 靈明之體 其性樂善恥惡而已 以此之性 妙應萬物 故孟子論四端 必以性善爲四端之本 其論仁義禮智 皆主行事而言 七篇之文 可歷考也 人性只是樂善恥惡 以其樂善 故有惻隱辭讓之心 以其恥惡 故有羞惡是非之以心其有四心 故能成仁義禮智之德 其本末內外 乞留意焉.

146) 「人皆有不忍人之心 章」, 『孟子要義』.
仁義禮智之名 成於行事之後 故愛人而後謂之仁 愛人之先 仁之名未立也 善我而後謂之義 善我之先 義之名未立也 賓主拜揖而後禮之名立焉 事物辨明而後智之名立焉 豈有仁義禮智四顆 磊磊落落 如桃仁杏仁 伏於人心之中者乎.

147) 「答李汝弘(1서)」, 『與猶堂全書』 제1집, 권19, 35면.
惻隱之心擴之以爲仁 羞惡之心擴之以爲義 辭讓之心擴之以爲禮 是非之心擴之以爲智.

다산은 1차 답장을 보내고 문산의 편지를 기다리지 못해 2차 편지를 먼저 보냈다. 문산은 다산처럼 조목조목 따지자니 서로 시비를 벌이는 것 같고, 입을 다물자니 情을 손상시킬까 걱정이 되어 머뭇거리다 이제 편지를 쓴다[148]고 밝히고는 다산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 당신의 지론을 자세히 살피니 측은지심 등 네 가지 마음은 바로 인·의·예·지를 할 수 있는(可) 本理일 뿐이라고 한다. 당신은 여기서 비록 네 개의 '可'자를 붙였지만 끝내 인·의·예·지와 분리하여 말하지 못하니, 인·의·예·지가 어찌 行事를 통해서만 징험될 수 있는 것에 속하고 '안에 있는 理'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인가? 사람 중에는 네 가지 마음이 없는 이가 없으나, 어진 사람이나 義士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그 단서를 좇아 확충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따라서 맹자는 "(사단을) 확충할 수 있으면 四海를 보호할 수 있지만, 확충하지 못하면 처자도 보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덕이 밖에 있다는 주장이 사단을 확충하는 일보다 무엇이 긴요하길래 굳이 성에다가 이 인·의·예·지 네 글자를 붙이지 않으려 하는가?[149]

다산의 주장은 인·의·예·지는 실천을 통해 성립되기 때문에 네 가지 마음을 잘 미루면 사덕이 될 수 있다(可)고 하였다. 즉, 인·의·예·지는 문산이 주장한 바대로 마음에 뿌리하고 있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마음을 잘 미루어야 될 수 있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산은 본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의·예·지로 사단을 확충하면 어진 사람이나 義士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둘의 문답은 이런 문제의 동어 반복에 불과했다. 몇 차례 더 편지를 주고받지만 둘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유당전서』에는 실려 있지 않고 『문산집』에만 실려 있는 다산의 5차 서신을 보면 그의 주장이 완고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端자를 머리로 해석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기에 반드시 이러한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려 하

---

148) 『문산집』 권11, 「茶山問答」.
惟是愚迷之惑 去益滋甚 淺陋之見 終未釋然 苟欲逐條辨明 則似近相訟 一直含默 則恐傷無隱 此所以握管還閣 歷多日而稽覆者也.

149) 『문산집』 권11, 「茶山問答」.
細琓盛論 惻隱等四心 乃可仁可義可禮可智之本理而已 執事於此 雖著四可字 而亦終不得離仁義禮智而說去 則仁義禮智 豈專屬之於行事邊 而不可原之於在內之理乎 人莫不有四心 而不得爲仁人義士者 豈有他故 不能因其端而擴充耳 是以 孟子曰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無以保妻子 四德在外之辨 何緊於擴充之工 而必欲於性分中 著此四字不得耶.

는가? 또한 내가 중년에 비록 수령에 빠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내 안목만은 일찍 뚫렸다고 할 만하며, 이 안목으로 사람들을 겪어 본 것도 여러 번이다. 그런데 지극히 공평한 마음자세로 털끝만큼도 치우친 사사로움이 없는 이는 당신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해묵은 습관이 여전히 가는 뿌리를 남겨, 매양 당신의 생각처럼 안 될 때 마다, 거대한 산의 위세로 누르려 하기도 하고, 더러 정론과 배치된다는 죄목에 저촉시키려 하기도 하며, 또 더러는 선입관을 가지고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 해악이 장차 남의 진심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나아가 불현듯 천하 사람의 입을 막고 스스로 자신의 귀와 눈을 닫는 데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당신의 심사를 이미 잘 알기 때문에, 그 예봉이 더욱 사나워지고 범함이 더욱 거세어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다.[150]

다산은 유배된 몸이지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학문적 안목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였다. 그리고 문산이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론과 배치된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나무랐다. 하지만 다산은 문산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끝까지 학문적 동료로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편지에 문산도 완고하게 대답한다.

삼가 당신을 살펴보니 고요히 수양을 쌓았기 때문에 마음에 묘하게 깨달음이 많고 사색에 깊고 견문에 정밀하여 식견이 얕은 나로서는 그 울타리 안을 들여다 볼 수조차 없는 것이 있다. 다만 흠이 있다면 조금만 거슬려도 이내 조급증을 내어 상대방에게 천하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윽박지르거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혹평을 하니, 어째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망은 심하게 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나같이 어리석고 졸렬한 사람이야 이미 당신이 성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표현이 이보다 열 배를 더하더라도 삼가 받아들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겠지만, 만일 太陽證[151]에 속한 사람으로 오직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를 만난다면 어찌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견해를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한번 웃는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제 서울로 떠나게 되면 이 말조차 자주 얻어듣기 어려우니 망연한 생각 더욱 간절해진다. 서로의 사귐이 깊어짐에 따라 내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털어놓으니, 송구스럽고 움추려진다.[152]

---

150) 『문산집』 권11, 「茶山問答」.
端字之解之爲首 何所不可 必欲日征而月邁耶 且鄙人中年雖汨沒泥淖 若其眼目 可謂早穿 以此眼目閱人多矣 然持心之至公極平 無一毫偏係之私者 初見老兄 然宿習猶有微根 每遇不如意處 或欲壓之以山壓之勢 或擬之以背馳之律 或拒之以先入之見 此其害將或有不盡人之肝肺 駸駸至於杜天下之口 而自塗其耳目者 如鄙人者 旣深知老兄之心事 故其鋒愈厲 其犯愈猛 終不自外於範圍之內 而他人之膽怯者必有厭然自沮者 伏惟老兄益恢謙虛之量 使人得盡其所欲言 而裁之以衡尺 務歸至當之地 如何如何.

151) 太陽證은 사상의학에 따르면 태양인은 성격이 과격하고 활달한 편이며, 마음이 조급하면서 노여움을 잘 타는 사람이다.

문산도 다산의 학문적 식견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남은 심하게 책망하면서 왜 자신에 대한 성찰은 절실하게 하지 않느냐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자신은 여러 번의 서신왕래로 다산의 학문적 경지와 마음을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면 수용하지 않고 화를 내고 말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사유체계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달랐다. 문산은 주자의 주장과 같이 인·의·예·지가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산은 인·의·예·지는 일을 행한 이후에야 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두 사람의 학문적 논쟁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정리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다.

---

152) 『문산집』 권11, 「茶山問答」.
竊覷老兄 以靜養之故 多妙契於心 其深於思索 精於見聞 有非膚淺者所可窺其藩籬 而只欠少有違忤 輒生躁厲 或抑加以杜天下之口 或苛評以主先入之見 夫何厚於責人 而薄於自察也 如愚之庸拙者 旣知老兄之誠心相愛 故遣辭雖過於此十倍 固當謹受 少無芥懋 而若遇太陽證人 專事好勝者 則豈肯俛首而聽命哉 當此之時 老兄將若之何 奉呵奉呵 然此後 此言亦難頻承 尤切惘然 荷相與之深 傾倒至此 悚仄悚仄.

제4장 결 론

다산의 수많은 저술은 대부분 강진 유배지에서 이루어졌다. 생활상의 곤란과 심적 불안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술에 몰두하여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그는 학문에 대한 끈기와 노력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그가 강진에서 보낸 편지에 대한 연구는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방법적 원리와 우국, 사상의 일면을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바탕이 된다. 그래서 본 논문은 강진 유배지에서 교유와 교육을 통한 그의 전체적인 삶과 학문 정신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편지에서 드러난 그의 생각이나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교유와 교육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학문이 확대되고 완성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해남윤씨의 경제적 지원과 교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산의 외가가 되는 해남 윤씨와 강진에서 살고 있는 해남윤씨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1808년에 윤단이 다산초당을 제공하여 다산은 학문적 저술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들과 교유하면서 학문적 토론도 하고 산수도 즐겼다. 또한 전답도 사들여 생활이 안정 되었고 유배 후반기로 갈수록 심적 안정으로 저술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제2절에서는 유배지에서 제자의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제자들을 크게 읍중제자와 다신계제자로 나누었다. 읍중제자들은 대부분 아전의 자제들이어서 다산이 초당으로 옮기면서 다산계 제자와 교류가 되지 못했지만, 황상과 이청은 학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청은 다산을 따라와 다산의 저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산계 제자들 또한 다산의 저술에 시종일간 참여했고 다산의 아들과 제자들은 다신계를 결성하여 다산의 해배 후에도 그들의 교류는 지속되었다.

제3절에서는 승려와의 교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암 혜장과의 만남으로 다산은 삶의 큰 활력을 찾게 되고 유·불의 학문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암의 『주

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다산이 『주역』에 대한 저술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암이 죽고 난 후 아암의 제자들은 다산의 제자가 되어 8년간 다산에게서 배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초의 의순도 다산 초당으로 찾아와 그에게 배웠다. 그래서 다산의 해배 후에도 다산의 아들과 만나 서울 지역 문사들과 교류하여 조선 후기 뛰어난 승려가 되었다.

제3장에서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학문방식과 태도, 그의 우국, 경학관 등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자녀에게 보낸 편지와 가계를 통해 그의 교육방법을 알아보았다. 다산의 자녀 교육은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였다. 먼저 자녀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여 학습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나 올바른 자세를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산은 鈔書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여 자녀에게 초서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주고 과제로 내주어 직접 검토하였다. 그리고 저술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긴 했으나 자세한 방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이러한 자녀의 교육방식은 바로 그의 학문 태도와 비슷하였다.

제2절에서는 형과 어떠한 방법으로 학문적 성취와 저술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폈다. 다산의 저술은 그의 학문욕구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특히 유배지에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 저술에 매달렸다. 정약전이 형이라는 점과 유배객으로 처지가 같다는 점, 그리고 학문의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다산은 유배지에서 대부분 형과 학문적 토론을 했다. 토론 방식은 다산이 초고를 형에게 보내면 정약전은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거나 수정을 하였다. 그러면 다산은 납득할 만한 것은 수용하였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형에게 비판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형제간의 학문적 토론은 다산이 수많은 저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래서 형은 다산의 학문을 인정하고 칭찬했으며 다산도 자신의 저술에 자긍심을 가졌다.

제3절에서는 정치적 동지인 김이재에게 두 가지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당시 농촌의 현실과 사회제도의 모순,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내용이었다.

다산의 친구들의 신유사옥으로 거의 몰락하여 다산은 같은 시파이면서 유배지에서 친하게 지낸 김이재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사회제도의 개혁을 바라고 자신의 반대파인 노론 벽파의 탄압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제4절에서는 문산 이재의와 3년여 간에 걸쳐 『맹자』의 심성론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다산이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산은 주자학에 대해 정통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다산은 주자학에 대해 비판적이며 실학의 실천론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다산은 주자학을 비판하는 자신의 경학적 입장에는 추호도 사심이 없으며 공명정대한 관점을 유지하였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론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다산이 강진에서 보낸 서찰을 통해 그의 학문 태도나 저술의 방법적 원리와 함께 그의 인간적인 면을 그려내었다.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유배 이전이나 해배 이후의 편지보다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가 대부분이어서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자녀의 공부가 막힐까봐 조바심을 내던 한 아버지의 상이 그려져 있고, 형의 건강을 걱정하는 따뜻한 동생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사회 제도를 바로 잡고자 했던 간절한 호소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완고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즉, 명확한 목표 관리와 효율적 진행을 통해 수많은 저술을 이룩한 위대한 학자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동생으로서 형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의 대변자로서 백성을 살리기를 힘쓰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인간 다산의 종합적인 면모가 강진에서 보낸 편지에 가장 절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다산의 종합적 면모를 주목하여 부각시켰다. 그래서 다산 연구자들이 본 연구를 밑거름으로 이용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가치는 적지 않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송기채 역, 『국역 다산시문집 1-10』, 민족문화추진회편, 1996.
『순조실록』
이재의, 『문산집』
정약용 저,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비평사, 2001.
정인보·안재홍 교열 『여유당전서』, 신조선사, 1934~1938.
황상, 『치원유고』
『해남윤씨 대동보』

2. 단행본

금장태,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이끌리오, 2005.
_____,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출판부, 1998.
김상홍, 『다산문학연구』, 단국대출판부, 1986.
_____, 『다산문학의 재조명』, 단국대출판부, 2003.
박무영,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 태학사, 2002
박석무,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2003.
송재소, 『다산시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심경호, 『간찰, 선비의 마음을 읽다』, 한얼미디어, 2006.

양광식 편역, 『다산의 강진유배 18년 上 東門賣飯家』, 문사고전연구소, 2003.
윤사순·고익진 편, 『한국의 사상』, 열음사, 1984.
이덕일,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2』, 김영사, 2005.
이을호, 『다산학총론』, 예문서원, 2000.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6, 문벌정치가 나라를 흔들다』, 한길사, 2003.
정석종,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4.
정약전 저, 신안군 편, 『詳解 자산어보』, 한국홍보기획공사, 1998.
정민,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 김영사, 2006.
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혜안, 2004.

3. 논문

권석동, 「정약용의 유배시에 나타난 현실인식고」, 『동악한문학논집』 제5집, 동국대학교, 1990.
김경숙, 「역사 : 과거의 역사 ; 조선시대의 유배길」, 『선비문화』, 남명학연구원, 2005.
유정희, 「다산의 자녀교육 연구 - 가계와 서간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1992.
이보람, 『다산과 문산의 인성 논쟁 연구 : 교류 서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순형, 「정약용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 두 아들에게 보낸 서간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1997.
이을호, 「전남 강진에 남긴 茶信契節目考」, 『호남문화연구』 제1집, 호남문화연구소, 1963.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제21집,

한국한문학회, 1998.
정석종, 「다산 정약용의 강진유배기 스님과의 交歡」, 『동양학』,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97.
진재교, 「다산학의 형성과 치원 황상」,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